2021國內學術踏査

# 전북통사

通史

조선대학교
글로벌인문대학 역사문화학과

# < 목차 >

Ⅰ. 답사 상세 일정

1. 답사 일정표 ····· P. 3

2. 답사 지역도 ····· P. 4

Ⅱ. 1,2조 답사 지역 개관 및 답사지 소개

1. 고창개관 ····· P. 8

(1) 고창고인돌유적 ····· P. 13

(2) 고창읍성 ····· P. 16

2. 부안개관 ····· P. 20

(1) 내소사 ····· P. 22

3. 정읍개관 ····· P. 27

(1)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P. 32

(2) 황토현전적지 ····· P. 36

Ⅲ. 3,4조 답사 지역 개관 및 답사지 소개

1. 임실개관 ····· P. 41

(1) 임실하가유적 ····· P. 45

2. 익산개관 ····· P. 51

(1) 미륵사지 ····· P. 54
(2) 국립익산박물관 ····· P. 59
(3) 진구사 ····· P. 63
3. 군산개관 ····· P. 68
(1) 근대역사박물관 ····· P. 73
(2) 구 군산세관 ····· P. 77
(3) 군산근대건축관 ····· P. 80
(4) 미술관 ····· P. 83
(5) 진포해양공원 ····· P. 86
(6) 동국사 ····· P. 90

Ⅳ. 마무리
1. STAMP ····· P. 95

2. 주의사항 및 비상연락망 ····· P. 96

# Ⅰ. 답사 상세 일정

< 답사일정표 >

| | 1조 | 2조 | 3조 | 4조 |
|---|---|---|---|---|
| 08:00-09:00 | 조선대학교 출발 | 조선대학교 출발 | 조선대학교 출발 | 조선대학교 출발 |
| 09:00-10:00 | 고창고인돌유적 09:00-10:30 | 내소사 09:30-11:20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09:30-10:30 | 임실 하가유적 09:20-10:00 |
| 10:00-11:00 | 이동 | | 군산 자율답사 10:30-11:30 | 임실 진구사 10:10-11:00 |
| 11:00-12:00 | 고창읍성 11:00-12:00 | 점심식사 11:20-12:20 | 이동 | 이동 |
| 12:00-13:00 | 점심식사 12:00-13:00 | 이동 | 점심식사 12:00-13:00 | 점심식사 12:00-13:00 |
| 13:00-14:00 | 이동 | 동학농민 혁명기념관 13:20-14:20 | 이동 | 익산 미륵사지, 국립 익산박물관 13:10-14:30 |
| 14:00-15:00 | 내소사 13:50-15:40 | 이동 | 익산 미륵사지, 국립 익산박물관 14:00-15:30 | 이동 |
| 15:00-16:00 | 이동 | 고창 고인돌 유적지 15:10-16:10 | 이동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15:30-16:30 |
| 16:00-17:00 | 동학농민 혁명기념관 16:30-17:30 | 이동 / 고창읍성 16:30-17:30 | 임실 하가유적, 진구사 16:20-17:30 | 군산 자율답사 16:30-17:30 |
| 17:00-18:00 | 조선대학교 이동 17:30 | 조선대학교 이동 17:30 | 조선대학교 이동 17:30 | 조선대학교 이동 17:30 |
| 18:00-19:00 | | | | |

## < 1조 답사 지역도>

오전 일정

· 조선대학교 → 고창 고인돌 유적 → 고창읍성




오후 일정

· 식당(고창 모양성순두부) → 부안 내소사 →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 조선대학교



## < 2조 답사 지역도 >

오전 일정
· 조선대학교 → 부안 내소사 → 식당(가람식당)

오후 일정
· 식당(가람식당) →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 고창 고인돌유적 → 고창읍성 → 조선대






< 3조 답사 지역도>

오전 일정

· 조선대학교→군산 근대역사박물관→자율답사




오후 일정

· 식당(대도관)→익산 미륵사지→국립익산박물관→임실 하가유적→진구사→조선대학교



## < 4조 답사 지역도 >

오전 일정
· 조선대학교 → 임실 하가유적 → 임실 진구사

오후 일정
· 식당(익산 시골우렁쌈밥) → 익산 미륵사지, 국립 익산박물관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및 자율답사 → 조선대학교






# Ⅱ. 1,2조 답사 지역 개관 및 답사지 소개

## <고창 개관>

20학번 박서현



<고창읍성의 전경>

국내 최대 규모의 고인돌 유적지를 자랑하는 고창군(高敞郡)은 대한민국 전라북도 서남단에 위치한다. 넓은 평야와 고창천이 흐르는 등의 지리적 이점으로 고대부터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농경 사회를 구성하였던 고창군은 삼국시대에 백제에 속해 상당한 수준의 문화를 발전시켰고,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 등을 생산했으며, 이후 왜의 침략이 잦아지자 그에 대비하여 읍성을 건축하기도 했다. 또, 조선 후기에는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의 동학농민운동 지도자들이 이끌었던 남접(南接)의 주축 지역이 되었다.

### 1. 고창의 역사

#### 1) 고창 역사의 연혁

오늘날의 고창군은 전라북도의 6시 8군 중 하나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창과 무장, 흥덕 세 고을이 병합되면서 생긴 명칭이다. 병합되기 이전의 고창의 명칭은 백제 시대에는 모량부리현, 신라 삼국통일 이후 경덕왕 16년(757) 고창현으로 개칭되어 이웃 무령군[1]의 영현(榮顯)[2]이 되었고, 고려 때는 고부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창현은 고려 때 이웃 상질감무(尙質監務)가 겸임하였다가 조선 태종 원년(1401) 두 현에 각기 감무(監務)[3]를 두었다. 이후, 현감을 두어 나주 진관(鎭管)[4]에 소속되었다가 고종 32년(1895) 군으로 승격되면서 소속도 바뀌었다. 건양 원년(1896) 전라남도에 소속되었으며, 융희 원년(1907) 전라북도에 소속되었다. 1914년에는 무장과 흥덕이 병합되었다.

무장은 본래 무송과 장사 두 고을이 병합된 고을이다. 본래 백제의 송미지현이었

1) 지금의 영광.
2) 몸이 귀하게 되고 이름을 떨침.
3) 지방의 군·현에 파견한 관직.
4) 조선 전기의 지방 군사 조직인 주진·거진·제진의 체제를 이르는 말.

던 무송은 신라 경덕왕 16년(757) 무송현으로 고쳐져 이웃 무령군의 영현이 되었다. 장사는 백제의 상로현이었으나, 신라 경덕왕 16년(757) 장사현이라 고쳐져 무령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에 들어서도 그 명칭이 그대로 내려왔으나, 후에 감무를 두어 무송과 겸임시켰다. 조선에 들어서는 태종 17년(1417) 무송과 장사 두 고을을 병합하여 무장이라 칭하고, 진을 설치하고 병마사를 두어 현 행정까지 겸임시켰으며, 세종 5년(1423) 병마사를 첨절제사(僉節制使)로 고치고, 이후에 현감을 두었다.

본래 백제의 상칠현이었던 흥덕은 신라 경덕왕 16년(757) 상질이라 고쳐져 고부군의 영현이 되었고, 고려 때에 장덕과 창덕을 거쳐 흥덕으로 고쳐졌다. 이는 고려의 충선왕과 창왕의 이름이었던 장과 창이었기에 피휘한 것이다. 흥덕은 감무를 두어 이웃 고창을 겸임시켰다. 조선에 들어서는 따로 감무를 두었다가 후에 현감을 두었다. 이때 진관은 전주, 토포영(討捕營)[5]은 나주, 속오군은 입암산성에 속했다. 흥덕은 조선 고종 32년(1895) 군으로 고쳐졌고, 광무 8년(1904)에 고부의 부안면이 편입되었다.

고창현은 고종 32년(1895)에 지방 제도가 개편함에 따라 군으로 승격되어 전주부(全州府)에 속해 있다가 건양 원년(1896) 전라남도에 소속되었고, 융희 원년(1907) 전라북도에 소속되었으며, 1914년 다시 전라북도 고창군에 병합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3군이 병합되어 17면으로 갈렸다가 1935년 오산, 벽사, 석곡 3면이 없어지고, 이웃에 편입되면서 14면이 되었다. 1955년에는 고창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1읍 13면 체제가 되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2) 고창의 지정학적 배경**

전라북도의 서남단에 자리 잡은 고창군은 서쪽으로는 서해에 면하고, 동북쪽으로는 정읍시, 남쪽으로는 전라남도 영광군과 장성군에 접해 있다. 고창군의 지세는 대체로 동남쪽이 높고, 서북쪽이 낮아 구릉지가 넓고, 충적지[6]가 좁은 편이다.



**<고창의 행정구역 지도>**

동남쪽에는 노령산맥의 본줄기가 달려 문수(文殊), 고산(高山), 방장(方丈), 구황(九皇) 등으로 연해져 전라남도와 경계를 이루고, 이곳에서 갈려 나간 줄기는 부안군의 변산과 고창군 관내의 소요산과 선운산을 이루고, 그 사이에는 주진천,

5) 각 도의 감영·병영·수영의 관할 하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둔 군영.
6) 하천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퇴적함으로써 이루어진 평야.

인천강, 해리천, 해천 등이 흘러 그 일대에 평야 지대를 이루고 있다. 한편, 서북쪽으로는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부안면, 흥덕면의 일부가 바다에 접해 있다.

## 2. 고창의 문화

고창군은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답고 멋과 풍류를 즐기는 고장으로 선사시대 고인돌 문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고창군은 삼국시대 백제 문화권에 속해 「선운산가(禪雲山歌)」, 「방등산가(方等山歌)」 등의 백제 가요가 산재하고 있고, 여섯 마당의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를 비롯해 강한영, 김소희 등의 판소리꾼을 배출하여 소리의 고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정주를 비롯한 수많은 문인과 서예가를 배출하여 문화의 보고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고창군은 '고창 고인돌체험마당',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읍성 축제', '동백연예술제', '고창굿한마당', '선운문화제', '고창예술제' 등을 열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 3. 고창의 문화재

고창군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 23점, 지방 지정 문화재 54점 및 향토 문화유산 7점 등 총 81점의 문화재와 1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다. 또한, 고창군은 2013년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으로 인해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7]으로 등재되었다.

### 1) 국가 지정 문화재

고창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로는 보물 5점, 사적 5점, 중요 민속 문화재 2점, 천연기념물 7점, 국가무형문화재 1점, 등록문화재 2점, 명승 1점 총 23점의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다.



<선운사 대웅전>

보물로는 제279호 선운사 금동보살좌상, 제280호 선운사 지장보살좌상, 제290호 선운사 대웅전 등이 있고, 사적으로는 제145호 고창읍성, 제250호 고창 분청사기 요지(窯址)[8], 제345호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등이 있으며, 명승으로는 제54호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이 있

7)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지역 중 하나로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주민 소득 증진 등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
8) 토기·질그릇·오지그릇·도자기·기와·벽돌·숯 따위를 구워내는 시설.

다. 중요 민속 문화재로는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제39호 신재효 고택이 있고, 천연기념물로는 제183호 고창군 대산면 이팝나무, 제184호 고창 삼인리 동백나무 숲, 제354호 고창 삼인리 장사송 등이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제110호 윤도장이 있다. 등록문화재로는 제176호 구(舊)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 등이 있다.

### 2) 지방 지정 문화재

고창군의 지방 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27점, 기념물 6점, 무형문화재 4점, 민속자료 3점, 문화재자료 14점 총 54점의 지방 지정 문화재가 있다.



<선운사석씨원류>

유형문화재로는 제14호 선운사석씨원류[9], 제28호 선운사 영산전 목조삼존불상, 제29호 선운사 육층석탑 등이 있고, 기념물로는 제39호 인촌 선생 생가, 제43호 효감천, 제90호 백관수고택 등이 있으며, 무형문화재로는 제7-6호 정창환 고창농악, 제7-6호 고창농악보존회, 제7-6호 정기환 고창농악 등이 있다. 민속자료로는 제25호 황윤석 생가, 제29호 김정회 고가, 제32호 사내리 당산 4기가 있고, 문화재자료로는 제98호 고창향교, 제107호 무장향교 대성전, 제108호 흥덕향교 대성전 등이 있다.

### 3) 유네스코 세계유산

죽림리와 도산리 일대, 상감리와 봉덕리 일대에 자리 잡은 고창 고인돌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 가장 큰 군집을 이루고 있고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으며, 고인돌 축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채석장이 존재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고인돌 변천사를 규명하기에 중요한 자료이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기준 제3항을 적용해 화순의 고인돌 유적, 강화의 고인돌 유적과 함께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9)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관음전에 있는 판각으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기록한 판각.



**<고창 고인돌 유적의 전경>**

**[ 참고문헌 ]**

강동석, 2011, 『GIS를 활용한 지석묘 공간분포패턴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해– 고창 분지 일대를 중심으로 –』

김봉곤, 2014, 『19세기 후반 고창지역 유학 사상과 동학농민혁명』

박근희, 2012, 『전북 고창군 : 낯선 고즈넉함 그러나 편안함』

김광모, 2015, 『고창군 :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를 꿈꾸다』

고창군지편찬위원회, 1992, 『고창군지』

## < 고창 고인돌 유적 >

21학번 황진홍



<고창 고인돌 유적 전경>

고창 고인돌 유적은 전라북도 고창군 일대에 분포해 있는 고인돌 유적지다. 고인돌(支石墓)은 단순한 매장처리의 개념을 넘어 당시 사회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고인돌은 무덤의 규모가 크고 공사 규모 또한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고인돌은 우리나라에 약 3만 기 정도가 분포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서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는 고인돌 약 2,600여 기가 분포해 있고, 그중 63% 이상인 1,665기의 고인돌이 고창지역에 분포해 있다. 이로서 전라북도 고창군에 가장 많은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고창군의 고인돌 분포




<고창군 구역 지도>

고창군은 지리적으로 크게 4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북부 산간, 동북부, 서남부, 동남부 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구역 중 중북부 산간지역과 동남부 산간지역에 고창 고인돌 유적이 약 80% 분포해 있다. 북부 산간지역의 고인돌은 하천을 끼고 있는 산 경사면의 하단부나 개활지에 분포하고 있고 북부 산간 지역에만 약 100여 기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다.

### 2. 고창 고인돌 유적의 특성

#### 1) 입지 특성

동북아 고인돌 문화권의 입지 특성은 크게 8가지로 나뉜다. 하천에 따라 위치한다는 것, 해안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는 것, 낮은 구릉성 산지의 완경사면(緩傾斜

面)[10]에 위치한다는 것, 산록(山麓)[11]의 하단부나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산지 쪽에 위치한다는 것, 낮은 구릉성 산지의 말단부에 위치한다는 것, 산언덕 전망 좋은 곳에 있다는 것, 평야 또는 평야 인접 지역에 분포한다는 것, 하천이나 골짜기를 바라보기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고창 고인돌 유적의 경우에는 산의 능선 방향으로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하천이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고창 고인돌 유적의 입지가 계획 없이 선정된 것이 아닌 해당 지역의 산맥과 하천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창 고인돌 유적의 입지를 풍수 용어로 표현하면, 선운산이 북서풍을 막음으로써 장풍(藏風)[12]이 잘 되어 있고, 구황산에서 시작된 물이 용을 거슬러 북쪽으로 흘러 들어와 모이는 역룡득수(逆龍得水)의 수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고인돌의 형식**

한반도의 고인돌은 겉 형식에 따라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뉘고, 내부 형식에 따라 석관형, 석곽형, 토광형, 위석형으로 나뉘는데, 고창 고인돌 유적에는 남방식, 북방식 고인돌과 석관형 고인돌이 대부분이다.



**<고창 고인돌 유적의 고인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돌 군집인 고창 고인돌 유적을 대표하는 무덤군으로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에 위치한 죽림리 지석묘군(支石墓群)과 월암리 지석묘군, 화산리 지석묘군 등이 있다. 이 고인돌 군집에는 남방식(南方式)[13], 북방식(北方式)[14], 지상석곽형(地上石槨)[15] 등 다양한 크기와 형식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다.

이때, 죽림리와 월암리, 화산리 일대의 고인돌 70여 기는 단일 면적으로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가 드문 경우이다.

**3) 발굴 조사**

고창지역의 고인돌 발굴은 1965년 국립박물관에 의해 상갑리 고인돌 3기가 발굴된 것이 최초이다. 이후 1983년 용계리와 운곡리에 위치한 고인돌 22기가 추가로

10)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은 면.
11) 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
12)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 용어. 바람이 운반하는 생기(生氣)는 받아들이고 모인 생기가 바람에 의해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13) 남쪽 지방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
14) 북쪽 지방에서 사용하는 형식이나 방식.
15) 자연 석괴로 토광 내에 장방형의 곽을 축조한 것.

조사되었고, 1992년 학술연구 목적으로 죽림리에서 고인돌 16기가 추가 조사되었으며, 1999년 죽림리와 예지리의 고인돌이 발굴, 조사되었다. 또, 2004년에는 원광대학교의 주관으로 주곡리에서 20여 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 3.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창 고인돌 유적은 기원전 2,000~3,000년 전의 장례 및 의식 유적으로서 선사시대의 기술 및 사회발전을 보여주는 뛰어난 유적이다. 2000년 11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이는 한국에 분포한 고인돌만의 특성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으로서 한반도 남서해안에 분포한 고인돌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인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조기호, 이병렬, 2003, 「고인돌시대 한반도 자생 풍수입지 : 고창지역을 중심으로」 18 · 1

이영진, 김지선, 서용제, 이훈, 2011,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고인돌의 관광 상품화 가능성 분석」 29 · 2

조기호, 이병렬, 2003, 「고창 고인돌 입지특성 분석」 7 · 1

민병삼, 박경숙, 2019, 「삼국시대 이전 고창과 화순의 고인돌 입지를 통한 한국 풍수사상 연구」 29 · 1

## < 고창읍성 >

19학번 박유성

### 1. 유적지 소개



<고창읍성전경>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외침을 막기 위하여 전라도민들이 유비무환의 슬기로 축성한 자연석 성곽이다. 일명 모양성(牟陽城)이라고도 하는 이 성은 백제 때 고창지역을 모량부리로 불렀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고창읍성은 나주진관의 입암산성과 연계되어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 만들어졌다. 1965년 4월 1일 사적 제145호로 지정된 이 성의 둘레는 1,684m. 높이 4~6m 면적은 165,858㎡ (50,172평)로 동·서·북문과 3개소의 옹성 6개소의 치성(雉城)을 비롯하여 성 밖의 해자(垓字) 등 전략적 요충시설이 두루 갖추어져 있다. 성벽을 쌓은 자연석은 거칠게 다듬어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는 초석(礎石), 당간지주(幢竿支柱)로 쓰였던 고석재(古石材)를 많이 사용하였다. 현재는 미석[16]이하의 성가퀴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고 성문 부근의 여장(女墻)의 흔적도 아직은 발견치 못했다.

축성 당시에는 동헌과 객사 등 22동의 관아 건물이 있었으나 병화로 소진된 것을 1976년부터 성곽과 건물 14동을 복원·정비하였다.

### 2. 고창읍성의 역사

고창읍성의 축성 연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고창읍성의 관아건물 보수 때 나타난 상량문과 각종 문헌 및 성돌에 새겨진 글자들에서 축성 연대를 유추할 수 있다.

고창읍성은 조선 세종 32년(1450)부터 단종 원년(1453)까지 전라좌우도 19개 군·현에서 구간별로 분담하여 축성한 흔적이 성벽 구간마다 각자(刻字) 되어 있다. 이 중에는 무장시면(茂長始面)·무장종(茂長綜)이라 기재된 흔적이 있으며, 동문옹성성벽에는 계유소축감동송지민(癸酉所築監董宋芝玟)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다. 이는 고창읍성이 계유년에 축조되었으며 무장현이 축성에 참여했다는 뜻이자,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고창읍성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고창현성

16) 성의 맨 아래에 성벽 바깥으로 내밀게 깐 얇은 돌

곽조(高敞縣城郭條)에 처음 나타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중종 25년(1530)에 간행했으나 단지 증보처에 '신증'이라는 두 글자만 표시한 것이므로, 성종 때 왕명에 의하여 김종직 등이 동국여지승람의 제2차 수정을 거쳐 탈고한 성종 17년(1484) 이전의 계유년으로 축성 연대가 압축시켜 볼 수 있다.

무장현은 태종 17년(1417)에 무송현과 장사현을 통합하여 무장현이 되었으므로, 계유소축의 계유년은 1417년 이후의 계유년이 된다. 즉, 고창읍성은 1453년의 계유년에 축성된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 3. 문화유산

#### 1) 고창읍성 척화비

고창읍성 척화비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개항기 척화비이다. 비석의 크기는 107×39×22㎝이고, 형태는 이수와 귀부가 없는 월석이다. 고창읍성 척화비는 고종 8년(1871) 흥선대원군이 병인과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쇄국양이정책을 펼치며 세운 것이다. 이에 고창지역에서는 이듬해인 1872년 고창현감 이동석(李東奭)의 주도 하에 모양성 내 공북루 오른편에 척화비를 세웠다.



**<고창읍성 척화비 앞면>**

비 앞면에는 양이침범비전즉화주화매국계아만년자손병인작신미입(洋夷侵犯非戰則和主和賣國戒我萬年子孫丙寅作辛未立), 뒷면에는 상지구년임신오월일행현감 李東奭 봉교입(上之九年 壬申五月日行縣監李東奭奉教立)이라 음각되어 있다. 이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아니하면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우리는 만 년 동안 길이 자손에게 경계해야 한다. 병인년에 작하여 신미년에 세웠다. 고종 9년 임신(1872) 오월에 현감 이동석이 교서를 받들어 세웠다.”라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고창읍성 척화비 뒷면>**

이후 1882년 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되

어 갔을 때 일본 공사의 요구에 의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척화비가 철거되었으나 현재도 비석이 일부 남아 있다. 서울에는 경복궁, 부산, 함양 등에 있고 전북에는 익산 여산동헌과 고창읍성에 존재한다. 특히 고창읍성에 있는 척화비는 건립시기와 건립자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으며, 칙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의의가 있다.

### 2) 고창 답성놀이



<고창답성놀이>

고창 답성놀이는 윤년閏年의 윤달에 부녀자들이 돌을 머리에 이고 성곽 위에 올라가 성 줄기를 따라 열을 지어 도는 민속놀이이다.

윤년의 윤달에 행해지는 답성놀이는 다릿병을 고치고 액운을 쫓으며, 무병장수하고 극락왕생한다는 속신이 기본을 이룬다. 윤달은 태음력과 태양력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만든 달로 보통 공달[空月], 덤달, 여벌 달, 남은 달, 썩은 달이라 부른다. 속담에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 놓아도 아무 탈이 없다."라고 할 만큼 윤달을 무탈한 달로 여긴다. 답성놀이가 윤달에 행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윤달 관념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는 1678년에 현감 이항李恒이 고창의 모양성牟陽城을 개축할 때에 윤 3월을 택하였다는 점과도 상통한다. 더하여, 윤달 중에서도 엿샛날을 저승문이 열리는 날로 여기는 관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성놀이를 하는 날을 여섯 수가 드는 초엿샛날(6일), 열 엿샛날(16일), 스무 엿샛날(26일)로 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답성놀이는 전라북도 고창 지역의 모양성 답성놀이이다. 이 놀이는 숙종 4년(1678) 고창 현감 이항이 정유재란 이후 폐성된 모양성을 대대적으로 개축하면서 시작되었다. 개축에는 여덟 개 현의 혈기 왕성한 남성들을 동원되었고, 윤 3월에 모양성 개축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돌을 머리에 이고 모양성을 돌게 했다.

답성놀이의 순서는 북문인 공묵문을 들어선 후 손바닥 크기의 돌을 머리에 이고 동쪽 성곽 위를 걷는 것으로 시작한다. 동문의 등양루에 오르면 문루의 창문을 세 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을 소원하는 치성을 올린다. 모양성에는 여섯 곳의 치성雉城이 있는데, 그곳에 이를 때마다 저승으로 가는 길에 쓰일 노자로 손수 가꾼 오곡을 백지에 한 줌 씩 싸 가지고 와서 조금씩 퍼 놓고 "저승길 노수요." 하고 합장하며 삼배三拜를 올린 뒤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의 소망을 빈다.

모양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왕생한다고 한다. 또 두 바퀴만 돌면 좋지 않다는 속신이 있어 세 바퀴를 도는 것이 관례이고, 머리에 이고 가는 돌을 떨어뜨리면 불길하다고 여기기에 조신하게 걸어야 한다.

### 4. 역사적 의미

이 성은 조선시대의 읍성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주초와 문짝을 달던 홈이 파인 누문(樓門)을 가지고 있어, 평양에 있는 고구려 시대의 성문, 보은의 삼년산성이나 강화읍성 등에서 볼 수 있는 양식과 비교되어 성곽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성벽 밟기 풍습으로 유명한데, 한 해의 재앙과 질병을 쫓고 복을 비는 의식의 하나로 좋은 민속자료가 된다.

### [ 참고문헌 ]

이동석, 미상. 2009, 『고창읍성척화비』, 전라북도금석문대계, 3, 334-338.
박영순, 2009, 『고창읍성(高敞邑城)과 무장읍성(茂長邑城)』,국토연구원, 167
이종명, 2017, 『고창읍성 / 강호항공고등학교』, 14-17.
고창읍성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철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 < 부안 개관 >

20학번 채서현

부안(扶安)은 전라북도 남서쪽 변산반도에 위치한 군이다. 동쪽으로는 정읍시, 서쪽으로는 황해에 면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곰소만을 경계로 고창군, 북쪽으로는 동진강 하구를 경계로 김제시와 인접한다. 동쪽은 낮고 서쪽은 높은 지형의 반도이며 남서부는 큰 산들이 첩첩이 솟아 있고, 북동부는 비옥한 평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과 북서계절풍의 작용으로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기후적 영향을 받고 있다. 지질명소로 우리나라의 지각변동사를 살펴볼 수 있는 대항리 화강편마암과 페퍼라이트와 명승지로 잘 알려져 있는 적벽강이 있으며, 격포리층으로 이루어진 채석강 등이 있다.



<부안위도진지도>

### 1. 부안의 역사

부안은 마한의 하나인 지반국(支半國)이 자리했었다. 4세기 경 백제의 남하정책으로 인해 항복하게 되었고 백제에 투항한 이후 부안은 정치, 군사, 해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백제 멸망 후 부안 주류성은 백제부흥의 시작점이자 수도로 사용되기도 했다. 개화와 흔량매 두 고을로 나눠져 있었는데 신라 삼국 통일 후 신라 경덕왕 16년(757) 개화현을 부령현으로, 흔량매현은 희안현으로 고쳐 불렀다. 고려 시기에는 희안현을 보안현이라 바꾸고 부령현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조선 태종 16년(1416) 부령의 부 자와 보안의 안 자를 따서 부안현이라 고친 후 조선 고종 32년(1895) 전국의 부, 목, 군현 단위를 군으로 통일하면서 부안군으로 바뀌게 되었다.

### 2. 해양제사유적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은 바다와 연관된 독립적인 제사유적으로 4세기 근초고왕 무렵부터 현대까지 해양신을 위해 제사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다. 이 유적은 전라북도 황해 인근에서 발굴 조사된 최초의 제사유적으로 삼국시대 이후의 제사 변화상

을 보여주며 고대 한, 중, 일의 교역이나 외교를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해상 무역의 요충지이다.

해양제사유적은 동아시아 고대사회에서 한중일의 교류와 그 사이에서 한반도가 갖는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며 역사적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 3. 부안 문화재 현황

부안 문화재 지정 현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22건), 도지정문화재(33건), 문화재자료(2건), 등록문화재(1건)으로 총 58건이다.



<해양제사유적 전경>

부안 내소사는 제227호 부안 내소사 고려동종, 제278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 제291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제1268호 내소사 영산회 괘불탱으로 4개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제124호 내소사 3층 석탑과 제125호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역시 도지정문화재로 속해 있다. 사적으로는 제69호 부안 유천리 요지, 제70호 부안 진서리 도요지, 제103호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제409호 부안 백산성(지), 제541호 부안 죽막동 유적 등이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제82-3호 위도 띠뱃놀이가 있으며, 명승으로는 제13호 부안 채석강· 적벽강 일원이 있다. 국가민속문화재로는 제18호 서문안당산, 제19호 동문안당산, 제150호 김상만 고택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로는 제122호 부안 도청리 호랑가시나무 군락, 제123호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 제124호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 군락, 제370호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김병남, 2017, 「고대 시기 부안의 지역적 기반과 변천」, 『전북사학』, 0 · 51

조규성, 김정빈, 조성욱, 양우헌, 정덕호, 권창우, 박경진, 홍덕표, 「고창군과 부안군 일대의 지질유산과 지질명소」, 『지질학회지』, 52 · 5

심승구, 2015, 「부안 죽막동 해양제사유적의 세계유산 가치와 등재 방향」, 『한국학논총』, 4

## < 내소사 >

21학번 강성훈



<내소사 전경>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에 위치한 내소사(來蘇寺)는 “이곳에 다녀가시는 이들 모두 새롭게 소생하라”라는 의미로 백제 무왕 34년(633) 혜구 두타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 창건 당시에는 대소래사와 소소래사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 없어졌다가 1000년이 지난 후 인조 11년(1633) 청민선사가 다시 중창하였다. 중창 이후 약 400여 년의 세월 동안 관해선사와 만허스님, 혜산스님이 중수·보수하여 오늘의 대가람이 만들어졌다.

### 1. 내소사의 역사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에 승려 혜구두타가 ‘소래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 현존 사찰은 임진왜란 당시 모든 전각이 불에 타 소실되었다가 인조 11년(1633) ‘청민선사’가 중건하였고 고종 2년(1865)에 ‘관해선사’가 중수(重修)[17], ‘만허선사’가 보수하였다.

### 2. 지명 유래

내소사가 과거에 ‘소래사(蘇來寺)’였다는 증거는 조선 성종 17년(1486)에 동국여지승람, 이규보의 ‘남행일기(南行日記)’, 최자의 ‘보한집(補閑集)’에 실려 있는 정지상의 시 ‘제변산소래사(題邊山蘇來寺)’ 등에 남겨진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언제부터 소래사를 내소사로 불렀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내소사라는 이름의 유래인 ‘내자개소생(來者皆蘇生)’에서, ‘부처님의 도량(度量)인 이 절에 오는 사람은 소생(蘇生) 하리라’라는 것이 내소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내자개소생에서 내소사라는 이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17) 건축물 따위의 낡고 헌 것을 손질함과 동시에 고침

### 3. 4개의 보물

#### 1) 내소사 고려 동종



<내소사 고려 동종>

내소사 고려 동종은 보물 제227호로 고려 시대 종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잘 나타낸 동종이다. 높이는 103cm, 입지름은 67cm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다. 종의 어깨 밑쪽에는 사각형의 유곽이 4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9개의 밖으로 돌출된 유두가 있다. 당좌(撞座)[18]는 연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몸통에는 구름 위에 삼존상이 나타나 있다. 가운데 본존불(本尊佛)[19]은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고, 좌우 양쪽에 협시불(脇侍佛)[20]이 서 있다. 정상부에는 음통(音筒)[21]과 용뉴(龍鈕)[22]가 있다. 부안 내소사 동종은, 한국 종의 전통을 잘 계승하였고 표현이 정교하고 사실적이다.

#### 2) 내소사영산회괘불탱



<내소사영산회괘불탱>

내소사영산회괘불탱은 보물 제1268호로 부처가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전체 크기는 길이 1,050㎝, 폭 897㎝이며 상하좌우의 회장 부분을 제외한 화면 크기는 길이 908m, 폭 857.4㎝로 정방형에 가까운 화면 안에 중앙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로 문수보살·보현보살, 관음보살·대세지보살, 다보여래·아미타여래가 대칭을 이루도록 배치하였다. 존상들은 모두 본존을 향해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석가여래는 오른손을 뻗어 아래로 내리고 왼손을 배 앞으로 들어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취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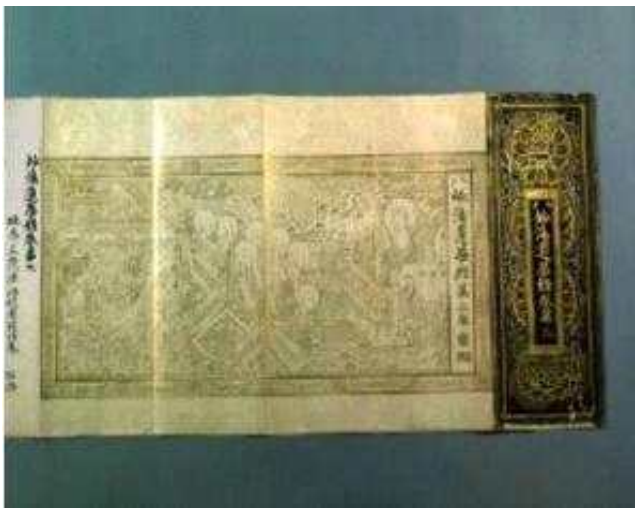
18) 종을 칠 때마다 망치가 닿는 일정한 자리
19) 으뜸가는 부처불 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불'을 이르는 말
20) 불상에서 본존불을 옆에서 모시는 불상
21) 소리가 맑고 은은하게 울리도록 함
22) 종을 매달 수 있는 용모양 고리

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여의를, 관음보살은 버드나무가 꽂힌 정병을, 세지보살은 인장을 들고 있다.

아미타여래와 다보여래는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있다. 숙종 26년(1700)에 제작된 이 괘불은 선의 정밀함, 옷의 무늬와 채색으로 각광받는 작품으로 17세기 말~18세기 초의 특징을 보여주며 인물들마다 명칭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불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 3) 법화경절본사본

보물 제278호로 법화경을 일자일배(一字一拜) 하며 옮겨 적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각 권은 병풍처럼 접었다가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이고, 접었을 때의 크기는 가로 10.9cm 세로 31.8cm이다. 각 권의 표지에는 금은색의 화려한 줄무늬가 장식이 되어있고, 금색으로 제목이 쓰여 있다. 각 권의 첫머리에는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묘사한 변상도(變相圖)[23] 색으로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법화경절본사본>**

책 끝부분에 일본인이 쓴 기록을 분석하여, 세종 25년(1443)에 일본으로 법화경이 유출되었으며, 선조 38년(1605)에는 광대원(廣大院)에 소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화경은 쓰게 된 경위를 적은 글과 변상도를 모두 갖추고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4) 내소사 대웅보전

보물 제291호로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왼쪽에 문수보살과 오른쪽에 보현보살을 모신 불전이다. 대웅보전 내·외부 벽면에 후불벽 배면벽화를 포함하여 포벽화 및 판벽화 등 총 111점의 벽화가 남아있다. 그중 포벽화는 동·서 측면에 각 7점, 남·북 측면에 각 10점으로 내·외부 벽화 34점씩 총 6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인조 11년(1633) 청민대사가 절을 중건할 때 지은 것이라 전한다.

---

23) 불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냄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3칸이며, 지붕은 측면에서 볼 때 팔(八) 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윗부분에 짜인 장식 구조가 기둥 위를 포함해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多包)[24] 양식이다. 밖으로 뻗어 나온 부재들의 포개진 모습은 옛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쪽 문에 달린 문살은 꽃무늬로 조각하였고, 건물 안쪽의 천장은 정(井) 자 모양으로 만들어 지붕 윗부분을 가리고 있고, 불상 뒤쪽 벽에는 '백의관음보살상'이 그려져 있다.



**<내소사 대웅보전>**

### 4. 역사적 가치

부안 내소사는 1986년 9월 9일 전라북도의 기념물 제78호 내소사일원으로 지정되었다. 백제 무왕 때 지어진 사찰로 절이 번성했을 때는 대소래사, 소소래사 로 나누어질 정도로 크게 번성하였던 시기가 있었다. 불교가 중흥을 맞았던 조선 시대 중기 건축양식을 나타내고 있고,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9곳 중 설선당과 요사는 가장 뛰어난 건축을 보여주고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면서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내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성보(聖寶)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4점과 지방 유형문화재 2점이 존재한다. 부안 내소사 동종, 백지묵서 묘법연화경,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부안 내소사 영산회괘불탱 4점의 문화재들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속해 있고, 부안 내소사 3층 석탑,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2점의 문화재들은 지방 유형 문화재로 속해 있다.

### [ 참고문헌 ]

조용중, 1999, 「선운사(禪雲寺)·내소사(來蘇寺)·개암사(開巖寺)의 석조문화재(石造文化財) 조사」, 『동원학술논문집』, 2

양선희, 이수예, 2020, 「부안 내소사 <영산회괘불도>의 복원모사를 통한 전통의 계

24) 목조건축 양식으로 기둥머리 위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에 짜 올린 공포

승=Process of Making the Replica of Naesosa's <Youngsanhoeguebuldo>(Hanging Buddha Painting) and Passing on the Tradition of Buddhist Painting of Joseon Dynasty」, 『무형유산』, 0 · 9
이화수, 이나라, 한규성, 2018, 「내소사 대웅보전 포벽화 제작기법 연구 = Study on Manufacturing Techniques of Bracket Mural Paintings of Daeungbojeon Hall in Naesosa Temple」, 『보존과학회지(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34 · 6
서영훈,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의 의미는...」, 『경남신문』, 2009.01.23
신용훈, 「"내소사, 독특한 'ㅁ'자형 요사채...문화재 가치 높아"」, 『법보신문』, 2020.09.17
박병역, 「[역사탐방] 신라는 전라도에서 건국<3>」, 『BreakNews』, 2009.06.03
최자, 2012, 『보한집(역주)』, 보고서

## < 정읍 개관 >

20학번 박서현



<정읍시 전경>

전라북도 남서부에 위치한 정읍시(井邑市)는 백제 때 정촌(井村)이라 불렸지만, 통일 신라 경덕왕 16년(757)부터 정읍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지하수가 풍부하였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정읍시는 삼국시대에 백제오방(百濟五方)[25] 중 하나인 중방(中方) 고사성(古沙城)이 위치한 중심지로 크게 번영하였고, 고려 시대에는 전공주도(全公州道)[26]의 관할 역으로서 역할 했고, 조선 시대에는 고부군이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發祥地)가 되었다.

### 1. 정읍의 역사

#### 1) 정읍 역사의 연혁

정읍시는 삼국시대 이전에는 마한의 정로국, 구소국, 불미국, 고비리국, 초산도비리국이 자리하고 있었고, 삼국시대에는 백제 정촌현, 대시산군, 고사부리군이 자리하고 있었다. 통일 신라 경덕왕 16년(757)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정촌현을 정읍현으로 개칭하여 태산군의 영현(榮顯)[27]으로 삼고, 대시산군을 대산군으로, 고사부리군을 고부군으로 개칭하였다. 이때의 정읍은 백제 오방 중 하나인 중방 고사성이 있었던 곳으로 정치적·군사적 중심지였다.

고려 태조 19년(936) 정읍현을 고부군의 속현으로 삼고 감무를 설치하였으며, 광종 2년(951)에는 고부군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였다. 현종 10년(1019)에는 설치하였던 안남도호부를 폐지하고, 고부군으로 환원하였다. 이때, 전공주도의 관할 역으로서 역할하였던 정읍현은 거산, 천원, 과원 등의 역참이 있었다.

조선대에 들어서는 태종 9년(1409) 고려 시대의 태산군과 인의현이 합쳐져 태안군이 되었고, 세종 3년(1421) 태인향교가 신축되었으며, 선조 22년(1589) 정읍현이 고부군에서 독립, 현으로 승격되었다. 고종 31년(1894) 고부 군수 조병갑의 압제정치(壓制政治)[28]에 반발하여 발생한 고부 농민봉기는 이후 전봉준 등을 중심으로 제

25) 백제의 지방 행정구역.
26) 고려 시대, 전주의 삼례역에서 회덕의 정민역 등 21개 역에 이르는 역로 이름.
27) 몸이 귀하게 되고 이름을 떨침.

폭구민과 보국안민을 기치로 한 동학농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건양 2년(1897) 정읍현은 정읍군으로 승격되었고, 1914년 태인군과 고부군을 정읍군으로 병합하였다. 이후 1930년 정읍면이 정주면으로 개칭되고, 1931년에는 정주면이 정주읍으로 승격되었는데, 1981년 정주읍이 정주시로 승격되면서 정읍군과 분리되었다. 1983년에는 내장면 전역과 소성면 일부, 덕천면 일부, 북면 일부가 정주시에 편입되었고, 1995년 도농통합 정책에 따라 정주시와 정읍군이 병합되면서 오늘날의 정읍시가 되었다.

**2) 정읍의 지정학적 배경**

노령산맥이 통과하는 정읍시는 그 줄기로 내장산 국립공원과 입암산이 연결되어 있는데, 산지와 구릉지를 이루는 동남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 광활한 평야를 이루는 서북부에는 하천이 지세를 따라 서북으로 흐른다. 특히, 정읍시는 옥정호를 수원지(水源地)[29]로 한 동진강이 용호천, 정읍천과 합류한 뒤 부안군과 경계를 이어 서해로 흘러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우수한 지정학적 배경을 갖춘 정읍시는 넓은 충적평야(沖積平野)[30]가 일찍이 경지로 개관되고, 관개 및 수리 시설을 갖추게 되었기에 농업에 적합했다.



**<정읍의 행정구역 지도>**

정읍시는 동쪽으로 완주군과 임실군, 서쪽으로 고창군과 부안군, 북쪽으로 김제시, 남쪽으로 순창군과 전라남도 장성군과 접하여 과거부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교류하는 교통상의 요충지로 역할하기도 하였다.

## 2. 정읍의 문화

정읍에는 정읍향교, 태인향교, 고부향교가 자리 잡았는데, 향교의 기능이 약화되어 서원이 설립되던 조선 중기 이후로는 남고서원, 고암서원, 무성서원이 설립되었다.

정읍의 대표적인 설화로는 「최숙빈과 대각교(大脚橋) 전설」, 「율지전설(栗池傳說)」 등이 있고, 대표적인 민요로는 「파랑새요」 등이 있다. 1964년 설립되었던 정읍문화원은 정읍의 문화진흥과 향토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에 이바지하고 있고, 1982년 창

28) 권력이나 폭력 따위로 억눌려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정치.
29)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는 곳. 산의 꼭대기 부근이나 선상지 밑단의 용수대 따위를 말함.
30) 하천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퇴적함으로써 이루어진 평야.

립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정읍지부는 정읍 예술인의 발전과 정읍 정신의 앙양을 위해 예술 활동을 주관 및 후원하고 있으며, 1992년에 설립된 정읍시립음악국악원은 국악 교육과 공연으로써 국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동진강과 고부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요 곡창지대를 이루어 산업과 교통이 발달하였던 정읍시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내장산 등 산지의 경승지(景勝地)[31], 동학농민운동 유적지 등 역사 관광지로서 많은 수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3. 정읍의 문화재

#### 1) 국가 지정 문화재

정읍에는 보물 8점, 사적 5점, 국가민속문화재 1점, 천연기념물 2점, 등록문화재 8점 총 24점의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다.



<정읍 피향정>

보물로는 제289호 정읍 피향정, 제309호 정읍 천곡사지 칠층석탑 등이 있고, 사적으로는 제166호 무성서원, 제295호 정읍 황토현 전적 등이 있으며, 국가민속문화재로는 제26호 정읍 김명관 고택이 있다. 또, 천연기념물로는 제91호 내장산 굴거리나무, 제497호 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가 있고, 등록문화재로는 제214호 정읍 관청리 근대한옥, 제276호 정읍 나용균 생가 등이 있다.

#### 2) 지방 지정 문화재

정읍에는 유형문화재 25점, 기념물 19점, 무형문화재 6점, 민속문화재 2점, 문화재자료 18점 총 70점의 지방 지정 문화재가 있다.



<천주교신성공소>

유형문화재로는 제196호 미륵사 석불좌상, 제234호 흥선대원군 효유문(曉諭文) 등이 있고, 기념물로는 제122호 고부 관아 터, 제130호 정읍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전 터 등이 있으며, 무형문화재로는 제2호 김명신(金明信), 제7-2호 김종수(金種守) 등이 있

31) 경치가 좋아 지정된 장소.

다. 또, 민속문화재로는 제4호 태인 신잠 선생 영상, 제13호 남근석(男根石) 등이 있고, 문화재자료로는 제141호 옥산서원, 제180호 천주교신성공소 등이 있다.

### 3)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

정읍시 칠보면에 자리한 무성서원은 소수서원, 필암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돈암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는 무성서원이 한국의 성리학 문화 전통의 증거로서 인정받은 것이며, 서원의 기능, 건축적 배치 등의 면에서 성리학 개념이 지역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잘 보여주는 유산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조선 광해군 7년(1615) 건립된 무성서원은 본래 태산서원이라 칭해졌으나, 숙종 22년(1696) 지금의 이름인 무성서원으로 사액(賜額)[32]되었다. 무성서원은 통일 신라 헌강왕 12년(886) 태산 태수(太守)로 부임하여 8년간 선정(善政)하였던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을 기리기 위해 생사당(生祠堂)을 세운 것에서 유래한다. 무성서원은 예(禮)와 악(樂)으로서 백성을 교화한 선비문화의 중심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자연 속에 자리 잡은 타 서원과는 달리 마을 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서원 운영과 보존에 참여해왔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성서원은 19세기 말 정부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毁撤)[33]되지 않은 전라북도 내 유일한 서원으로 고운 최치원과 불우헌(不憂軒) 정극인(丁克仁) 등 성리학을 보급하고 학문을 장려한 7인을 배향(配享)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인 '고현동향악'을 시행하였으며, 을사늑약 체결로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이에 항거하여 1906년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을 맹주로 호남 최초의 의병을 창의(唱義)한 역사적 현장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32) 임금이 사당, 서원, 누문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
33) 헐어서 치워 버림.

**[ 참고문헌 ]**

김병남, 2007, 『정읍 고부의 지역적 형성과 변화 과정-고·중세 시기를 중심으로-』

김광모, 2020, 『역사 · 문화의 도시 정읍 '르네상스 시대' 열려』

진성수, 2019,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원규』

임선빈, 2018, 『17세기 무성서원 무성서원의 건립과 운영-제향 인물과 사액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재청 국가 문화유산 포털

## <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

21학번 임서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전경>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전시, 보존 및 연구하는 기념관이다. 2004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의 최초 전승지인 황토현 전적지 부근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에 개관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외세를 몰아내고자 한 동학농민군의 희생을 기리고, 후에 갑오개혁과 3.1운동에 영향을 준 동학농민혁명의 의의를 새기기 위해 설립되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용했던 무기류 106점과 생활 자료 458점, 역사자료 3천 832점, 서화류 54점, 종교관련 서적 319점 등 모두 4천769점을 전시 및 보관 중에 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전봉준의 재판 기록인 공초록(供招錄)과 판결문 사본, 흥선대원군의 효유문(曉諭文) 등이 있다. 효유문은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 전 흥선대원군이 농민군의 해산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흥선대원군은 동학농민군에게 밀지를 보낸 것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농민군의 해산을 권고하는 효유문을 보낸 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1층에는 전봉준이 자주 연설을 했던 말목장터의 감나무가 보존되어 있다.

### 1. 역사적 배경 - 동학농민혁명

1894년 1월,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의 지휘 아래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대항해 고부 관아를 습격하였다. 동학농민군은 감옥을 부수어 무고한 죄수들을 풀어주고 무기고를 접수하였으며, 조병갑이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세우고 보세(洑稅)[34]를 받았던 만석보를 허물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챈 조정에서는 신임 군수 박원명을 파견해 봉기를 해산하게 하였으나, 뒤이어 도착한 안핵사(按覈使)[35] 이용태의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대응은 농민군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34) 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나 곡식
35) 조선 후기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위해 파견한 임시 직책

전봉준은 보국안민(輔國安民)[36]과 제폭구민(除暴救民)[37]의 기치 아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재봉기했다. 농민군은 고지인 백산으로 향하여 관군과의 싸움을 준비하였고, 전라감사인 김문현의 대응으로 감영군과 농민군은 정읍 황토현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4월 6일 밤 야습을 감행한 농민군은 감영군을 크게 무찌르며 관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게 된다.



**<동학농민혁명 기록화>**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 이어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전주성까지 점령하였다. 당황한 조정에서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군에 파병을 요청하게 된다. 청이 아산만에 상륙하자 일본은 청과 일본 중 한 쪽의 군대가 조선에 파병하면 다른 쪽도 파병한다는 톈진 조약에 의거 제물포에 군대를 상륙시킨다.

농민군이 외세의 개입에 대한 명분이 되고, 농사철 또한 가까워지자 농민군은 5월 7일 관군 측과 전주 화약을 맺고 물러났다. 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하여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빈민을 구휼하는 등의 폐정 개혁을 실시했다.

조선 조정이 철수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해군은 풍도 앞바다에 떠 있던 청나라 군함을 격침시키고, 경복궁을 점령하여 친일 개화정권을 출범시켰다. 김홍집이 이끄는 내각은 청일전쟁 중 1차 갑오개혁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내정 간섭에 분노한 농민군은 전국적으로 제 2차 동학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된다.

조선 관군은 일본군과 연합하여 농민군을 진압하고자 했다.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월등한 화력에 밀려 결국 패배하고 만다. 금구로 도피했던 전봉준은 11월 순창에서 체포되었고,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다.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내세운 대규모 민중항쟁으로서 피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조선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36)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37)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함

## 2. 각 전시실 안내

### 1) 제1전시실

제1전시실의 1전시관에는 당시 농민들이 사용했던 농기구와 생활 용품 등이 전시되어, 탐관오리의 수탈에 시달렸던 농민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2전시관은 체험공간으로 이용되며, 3전시관은 어린이 전시실로 동학농민혁명을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림과 체험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4전시관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인 전봉준, 김개남, 최경선, 김덕명, 손병희와 제2대 동학 교주인 최시형 등 6인의 초상이 걸려 있다.



**<동학농민혁명 주요인물 6인의 초상화>**

### 2) 제2전시실

제2전시실은 6전시관부터 14전시관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그 이후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5전시관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화 4점을 전시하고 있다. 입구에 설치된 대동여지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포함하여 조선시대의 농민 봉기 발생지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6전시관부터 농민군과 관군, 일본군이 실제 전투에서 사용했던 무기류와 각종 사료가 전시되어 있다. 전봉준이 재판 과정에서 농민 봉기와 흥선대원군 간의 연관성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는 장면, 농민군과 관군·일본군·청군의 군복 등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세세하게 고증하여 전시하고 있다.



**<전봉준의 심문 과정 모형>**

### 3) 기획 전시실

기획전시실에서는 매년 두 차례의 기획 전시가 열린다. 6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특별전 <30만 동학농민군의 얼굴>이 개최되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그림 공모전 수상작 27점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동학농민군의 얼굴'과 '널리 알려진 동학농민군의 얼굴'이다.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동학농민혁명의 의의를 대중과 더불어 각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3. 상징 조형물

#### 1) 진혼 I

기념관 1층에는 무명 동학농민군의 혼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진혼 I'이라는 주제로 설치된 상징 조형물은 4개의 강화유리박스 안에 투명전구 3만 개를 담은 형태로, 3만 개의 전구 가운데 불이 켜진 전구는 4개의 유리박스에서 각각 1개씩 뿐이다. 이는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기 전 암울했던 시대상과 혁명에 대한 의지를 상징한다.



<진혼 I>

#### 2) 진혼 II

'진혼 II'라는 주제의 상징 조형물은 가로 1.5m, 높이 5m로 만들어진 스테인리스 상자 안으로 들어가 관람할 수 있다. 진혼 I과는 달리 진혼 II에는 사면에 부착된 거울을 통해 조명 빛이 화려하게 반사된다. 진혼 II의 전시공간 표지판에는 '우리 모두 갑오년에 보안국민 외치며 쓰러져간 농민군의 넋을 깊이 애도를 표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입구 상단에는 전봉준과 손화중 등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6인의 사진과 활동상이 전시되어 있다.



<진혼 II>

**[ 참고문헌 ]**


신정일, 2019, 「신정일의 동학농민혁명 답사기」, 푸른영토

이이화, 2014,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김경섭, 「주민과 함께하는 박물관-17.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북도민일보』, 2009.10.07.

박용근, 「동학농민군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경향신문』, 2021.06.17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홈페이지

## < 황토현 전적지 >

21학번 임서연

황토현 전적지는 동학농민군이 관군과의 첫 번째 접전에서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에 위치해 있다. 1981년 사적 제 295호로 지정되었다. 황토현 전투가 일어났던 5월 11일 매년 위령제가 열리며, 이 기간에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개최된다.

### 1. 유적 소개



<황토현 전적지 전경>

황토현 전적지는 동학농민군이 관군과의 첫 번째 접전에서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에 위치해 있다. 1981년 사적 제 295호로 지정되었다. 황토현 전투가 일어났던 5월 11일 매년 위령제가 열리며, 이 기간에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개최된다.



<전봉준 장군 동상>

황토현 전적지로 들어가는 입구인 제세문은 세상을 구한다는 뜻으로,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 아래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의 의의를 담고 있다. 내부로 들어서면 1987년 전두환이 설치한 황토현 전적지 정화 기념비가 보인다. 제세문 맞은편의 보국문을 지나면 전봉준 장군의 영정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각종 사료들이 전시된 제민당이 있다. 제민당 옆에 위치한 기념관에서는 고부 농민봉기, 황토현 전투 등 시기별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987년 보국문 맞은편에 설치된 전봉준 동상 및 배경 부조 시설물은 높은 화강암 받침대 위에 짙은 청동색으로 높이 6.4m의 규모이다. 전봉준 장군 동상은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작가 김경승이 제작한 문제 외에도 동학농민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전봉준을 죄수처럼 맨상투를 튼 차림새로 묘사하였으며, 동상 뒤편의 부조에 조각된 농민군

의 얼굴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채 병풍처럼 보여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여러 역사적·예술적 논란으로 인해 7월 철거 예정에 있다.

동상 너머의 작은 산에 위치한 갑오동학농민혁명 기념탑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최초의 탑으로 1963년 10월 3일 건립되었다. 탑신 앞면에는 동학농민군이 내세웠던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라는 노래와 함께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되면 못 가보리'라는 노래가 새겨져 있다.

1991년 황토현 전적지 내부에 세워진 사당인 구민사(救民祠)에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인 1994년부터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김개남·손화중과 참전제위(參戰諸位)의 위패 4위가 모셔져 있다.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농민군 지도자 김덕명 등 51명의 위패와 동학농민혁명 선열 60명의 위패를 추가로 봉안하였다.

## 2. 역사적 배경 – 황토현 전투

고부 농민 봉기가 신임 군수 박원명에 의해 해산된 뒤 내려온 안핵사 이용태는 민란을 일으킨 두목들을 잡아들인다는 명목으로 온갖 행패를 저질렀다. 이용태가 역졸들을 풀어 농민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욕보이며 집을 불태우는 폭력적인 대응을 일삼자, 박원명의 회유에 동요하며 흩어졌던 민심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전봉준은 무장에서 동학 접주인 손화중과 김개남을 만나 봉기에 동참하도록 설득했다. 이들은 수하에 있던 농민들을 규합하고 조직을 정비하며 포고문을 발표했다. 전령(傳令)들은 전라도 고을을 비롯하여 충청도·경상도의 여러 고을에 포고문을 전달하여 수천 명의 농민을 규합했다.

이후, 다시 봉기가 일어나자 박원명과 이용태는 관아를 버리고 달아났다. 전봉준은 25일 백산으로 진을 옮겨 농민군을 새로 편성하고 부서를 결정하는 등 대오를 정비했으며, 전봉준은 자신을 총대장으로 추대했다. 이에 전라감사 김문현은 경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모조리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4월 6일 영관 이경호가 향병(鄕兵)[38] 600여 명을 포함한 감영군 1,300여 명을 이끌고 백산 너머의 동진강 화호나루를 건너오자, 농민군은 도망치는 시늉을 하며 두 갈래로 나뉘어 황토현 방향으로 물러났다. 추격하는 감영군은 비가 내려 질척거리는 황톳길을 지나며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감영군과 농민군은 두승산을 사이에 두고 각각 서남쪽과 동쪽 고지에 머물며 대

38) 각 지방에서 그 지방 사람으로 조직하여 훈련한 병정.

치했다. 밤이 되자 농민군을 얕잡아본 감영군은 소를 잡아 술판을 벌이고 추위를 피하고자 소나무를 베어 횃불을 만들었다.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가운데 연기가 더해져 시야가 차단되었고, 전봉준은 부하 두세 명과 함께 어둠 속에서 감영군 진영을 정찰한 다음 새벽에 기습하기로 했다. 방심해 있던 감영군은 변변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무너졌으며, 영관 이경호 역시 전사했다. 관군을 상대로 한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농민군은 군량미 400여 석과 대포 1문, 소총 600자루 및 칼과 창을 수습했다. 농민군의 사기가 크게 고무되고 관군의 사기가 저하됨으로써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의 승리에 힘입어 이후 전주성까지 점령하였다.

### 3. 인물탐구 - 전봉준(全琫準)

전봉준은 조선 철종 6년(1855), 전라북도 고창군 죽림리 당촌에서 태어났다. 전봉준은 어려서부터 훈장이었던 아버지 전창혁에게 글을 배워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읽는 등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고종 29년(1892), 전봉준은 동학의 평등사상과 사회 개혁에 대한 가르침을 접하고, 37세가 되던 해에 동학에 입도, 이후 최시형으로부터 고부 접주로 임명되었다.



**<순창에서 체포된 전봉준>**

당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은 대가 없이 농민들을 동원하여 만석보를 쌓아 보세를 받고, 부농들의 행실을 트집 잡아 2만여 냥을 강제로 거두는 등 각종 부정을 저질렀으며, 태인의 현감을 지낸 아버지 조규순의 공적 비각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1천여 냥을 거둬들이는 등 온갖 핑계를 동원하여 농민들을 수탈하였다. 고종 30년(1893),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김도삼, 정익서와 함께 조병갑에게 사정을 호소하는 등장(等狀)[39]을 올렸으나, 조병갑은 이들을 난민이라 하여 때려 가두고 전라감영으로 올려보냈다. 전라감영으로 올려보내진 세 사람은 심한 형벌을 당한 후 다시 고부 관아로 보내져 곤장을 맞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풀려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창혁은 장독으로 사망하였다.

전창혁의 죽음으로 고부 민심은 더욱 불타올랐다. 전봉준은 고부 죽산리의 부호 송두호의 집에서 사발통문을 모의했다. 사발통문은 상소 등을 올릴 때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둥근 사발을 엎고 둘러가며 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이때 작

39) 연명으로 사정을 적는 문서.

성한 사발통문에는 고부뿐만 아니라 고창, 부안, 정읍 등지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해 스무 명이 서명하였다. 사발통문에 적힌 봉기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머리를 벨 것.*
*2. 무기 창고와 화약 창고를 점령할 것.*
*3. 군수에게 아부하여 인민을 갈취한 탐관오리를 쳐서 징계할 것.*
*4. 전주 감영을 점령하고 서울로 곧바로 올라갈 것."*



**<사발통문>**

고종 31년(1894) 1월 10일 밤, 전봉준은 군중을 이끌고 고부 관아를 점령했다. 조정에서는 박원명을 신임 군수로, 이용태를 안핵사로 임명하여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용태의 폭력적인 대응은 이미 흩어졌던 농민군을 다시금 불러 모으는 결과를 낳았다.

전봉준은 동학 접주인 손화중, 김개남과 협력하여 다시 봉기를 일으켰다.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고 전주성까지 점령하였으나, 조정에서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다.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청을 견제하던 일본 역시 톈진 조약을 내세워 파병하자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은 전주 화약을 맺고 물러났다.

전봉준은 고을마다 농민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 개혁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미 조선 땅에 들어온 청과 일본 사이에 청일전쟁이 발발하였고, 친일 개화 정권이 성립하자 전봉준은 삼례에서 농민군을 이끌고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에 밀려 패배하고, 이어진 몇 차례의 전투에서도 패하고 만다. 전봉준은 11월 27일 태인 싸움을 마지막으로 농민군을 해산하였다. 이후 순창으로 피신한 전봉준은 옛 부하였던 김경천의 밀고로 체포되고 말았다. 전봉준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은 끝에 교수형에 처해져 생을 마감한다.

**[ 참고문헌 ]**

박맹수, 2017, 「전봉준의 평화사상」

임장훈, 「정읍 황토현전적지 친일작가 제작 전봉준 장군 동상 철거 예정」, 『전북일보』, 2020.10.01.

임장훈,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추진위원회, 동학농민혁명 동상 건립 기부금 모금 시작」, 『전북일보』, 2021.06.30.

국가 문화유산 포털 – 정읍 황토현 전적

# Ⅱ. 3,4조 답사 지역 개관 및 답사지 소개

## < 임실 개관 >

20학번 박성군

임실은 전라북도의 중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에 진안군, 남원시와 장수군, 서쪽에 정읍시, 납쪽에 순창군, 북쪽에 완주군과 접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597.04km$_2$이며 1읍 11면 131리이다. 군의 대부분이 노령산맥의 동사면을 이루는 산지이며, 남동방향으로 해발 250m 내외의 고원성 분지가 형성되어 남원까지 이어진다. 대표적인 산으로는 성수산, 정각산, 백이산, 백련산, 회문산 등이 있으며 하천은 섬진강이 군의 서남부에 흐르고 그 지류인 오원천이 군의 북부를 서남류하여 옥정호에 모인다.




<임실군 지도>

### 1. 임실의 역사

임실의 역사는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임실군내에서는 48곳의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군내의 유일한 신석기시대 유적지인 하가유적이 있다. 또한, 임실 신평 가덕리에 위치한 하가유적에서는 구석기와 신석기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임실의 청동기 유적으로는 고인돌과 토기 및 석기 조각 등을 볼 수 있다. 그 생활유적은 청동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송국리형 취락이며, 무덤 유적 역시 송국리형 문화 단계에 해당한다.

임실지역에서는 마한의 소국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에 임실지역에 원삼국시대 유적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했을 때 이 지역에도 마한의 소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실지역의 마한 유적은 A.D. 3C부터 확인된다. 출토한 유물은 제작 방식을 볼 때 마한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양상과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로 유추해 볼 때, 임실 지역의 출토유물은 마한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유물이 아라가야의 중심지인 함안지역과 연관된 외래계 유물이라는 사실을 통해 임실 지역의 세력이 4세기경에 이르러 점차 성장하며

주변국과 교류를 확대하여 갔음을 알 수 있다. 임실은 삼국시대 백제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시되었으며, 백제와 가야문화의 중간 거점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임실은 삼국시대 백제의 영역으로 편제되었다가 백제가 멸망하고 부흥운동이 실패하자 통일 신라에 흡수되었다. 하지만, 후삼국시기로 들어서면 임실지역은 견훤의 세력에 편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견훤이 전주에 중심으로 두고 남원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경상남도 합천에 있던 대야성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금산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940년(태조 23) 군현의 명호를 제정하였다. 이때 임실군은 그대로 두고 돌평현과 거사물현이 각각 구고현과 거령현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993년(성종 12)에 12목에 외관을 파견하면서, 임실군, 구고현, 거령현 등은 12목에 하나인 전주목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2년 후인 995년에는 10도제가 실시되면서 임실현, 구고현, 거령현은 모두 강남도에 소속되어 전주목 순의군절도사(順義軍節度使) 관할 하에 들어갔다. 또한 1018년(헌종 9)에는 임실군, 구고현, 거령현이 전주 계수관하 남원부의 속현으로 편제되었다. 임실 지역은 또한 주요 교통 요충지였는데, 이 지역의 오수역-오원역-갈담역으로 이어지는 역로는 북쪽의 전공주도[40]와 접속하는 주요한 교통로였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 임실군은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 1409년(태종 9)에 모든 속현이 직촌화되면서 임실군, 구고군, 취인부곡, 양등량소 등 4개 고을이 임실군에 통합되었고, 기존까지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으나 1413년 감무관이 현감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임실도 현감이 임명되는 군현이 되었으며, 임실현은 대체로 종6품의 음관 수령이 임명되었다.

19세기에는 세도정치와 서세동점의 상황 속에서 동학이 등장하였다. 동학의 전라도 포교는 최제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최제우의 처형 후, 1880년대 중반에 최시형이 다시 포교하면서 동학이 널리 전파되었다. 『임실동학사』에 의하면 동학의 임실 포교는 1873년 최시형의 가르침을 받은 최봉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임실의 대접주였던 최봉성과 그 사위, 아들들은 동학의 임실 포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임실은 동학농민혁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먼저, 동학농민군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인 김개남이 임실 상이암에 머물면서 정국을 구상하였다. 또한, 1894년 8월 25일 동학농민군이 남원으로 들어갈 때 임실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근거로 임실이 김개남의 유력한 근거지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역의 3·1운동은 천도교 조직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서울에서 보낸 독립

40) 고려시대 22개 역도(驛道)의 하나. 삼례역(參禮驛 : 전주)을 중심으로 고산(高山)-연산(連山)-진잠(鎭岑)-회덕(懷德)에 이어지는 역로와 전주-정읍, 전주-부여 등을 잇는 역로. 21개 역이 속함.

선언서와 3·1운동에 대한 소식이 천도교 전주교구실을 통하여 임실교구실에 도착한 것은 3월 2일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임실은 한영태, 강계대, 한준석 등을 주축으로 하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조선시대의 임실에는 일도면, 신안면, 이인면 등 18개의 면이 있었지만, 1906년 12월의 지방관제의 개편에 따라 남원부에 속하였던 영계방, 아산방, 등 6개 방이 임실군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24개면 359개리가 되었다. 그 후 1914년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임실군은 12개면 130개리로 조정되었다.

## 2. 임실 문화재 현황

임실군내 지정 문화재는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전체 38건이며, 유형별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 1건, 천연기념물 2건, 국가무형문화재 2건, 등록문화재 3건으로 모두 8건이며,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2개소, 기념물 3개소, 무형문화재 1명, 민속문화재 3건, 문화재자료 11개소로 모두 30건이다.

| 국가지정문화재 | | | | | | | | 소계 | 도지정문화재 | | | | | 총계 | 소계 |
|---|---|---|---|---|---|---|---|---|---|---|---|---|---|---|---|
| 국보 | 보물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중요무형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 |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문화재 | 문화재자료 | | |
| 9 | 92 | 34 | 6 | 32 | 10 | 13 | 57 | 589 | 209 | 76 | 113 | 35 | 156 | 842 | 253 |

**< 임실군내 지정 문화재 현황표 >**

임실군 문화재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목조문화재는 16개소이며, 불교 관련 문화재는 10개소, 유교 관련 문화재는 임실향교 대성전을 비롯하여 서원과 누정을 합쳐 13건이다.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임실필봉농악과 한지장 홍춘수씨 등 2건이며,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지장 제 34호 김일수씨가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또한 임실군은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에 들지 않은 것으로서 임실군의 향토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임실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참고문헌]**

임실군지편찬위원회, 2020, 『임실군지』
국립전주박물관, 2011, 『전북의 역사문물전-임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임실 하가 유적 >

21학번 박민희

## 1. 유적지 소개



<임실 하가 유적 전경>

임실 하가 유적은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687-23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2000년 진안용담댐 수몰 지역 내 진그늘 유적이 조선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이후 인접 지역에 대한 구석기 유적 지표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임실군 지역에서 11군데의 구석기 유적을 발견, 2000년 5월 하가 유적이 처음 발견되었다. 임실 하가 유적은 발견 당시 지면에서 밭과 논의 경작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일부 석기들은 지면에 노출되어 있었다.

임실 하가 유적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의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그 조사 결과로 두 개의 구석기 문화층과 신석기 문화층이 발견되었다.

임실 하가 유적에서는 사냥용 도구와 가공 도구 등이 출토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진 주 살림터였음을 알 수 있다.

유적에서는 일본에서 발견되는 모뿔석기[41], 나이프형석기[42], 슴베찌르개[43], 나뭇잎모양찌르개[44]가 출토되었으며 이 유물들이 함께 드러난 유일한 곳이다.

## 2. 자연환경

### 1) 지형환경

하가 유적은 용오산의 북서쪽 지맥에 위치하는데, 유적의 동쪽은 산골로 이어져 있으며 나머지 삼면에는 조원 천과 작은 시내가 흐른다. 그 주위에는 노령 소백산

41) 또는 각추상석기, 서일본 중심 분포. 수렵구의 기능과 두꺼운 날의 긁개의 가공구 기능 소지. 복잡한 박리흔으로 제작방식의 규칙성을 찾기 힘듦. 초기의 큰 크기에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

42) 일본 전 지역 분포. 자르는 도구와 첨두기의 용도로 쓰임.

43) 구석기시대 중 후기에 나타난 찌르개. 슴베를 제작해 나무 등에 꽂아 창 등으로 이용.

44) 또는 창끝찌르개, 양끝찌르개. 동일본 중심 분포. 하가 유적 출토품은 소형의 양면이 얇고 깊게 잔손질 된 것.

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계곡 분지 환경의 하가 유적은 주변 산지에서 물을 가까이 구할 수 있어 사냥감이 풍부했다. 동시에 곡류하는 수계 안쪽에 형성되어 유속이 낮아 생활에 유리하였으며, 평지이고, 양호한 식생 환경을 갖추어 생활에 유리한 환경이었다. 또한, 산자락을 따라 노출된 암석 노두에서 떨어져 나온 역들이 강 밑바닥에 깔려 석재를 구하기에 유리하였다.

하가 문화층의 방사성 탄소연대는 보정연대 21,500B. C.와 보정연대 21,300B. C.로 최후빙하극성기[45]에 해당한다. 당시 해수면이 지금보다 120m에서 150m 정도 낮았기 때문에 서해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의 해수 표면 온도는 현재보다 3~5도 낮았지만, 하가 유적지 인근은 난류의 영향으로 한반도 내륙보다 비교적 온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지질환경

지질학적으로 하가 유적지가 속한 계곡 분지를 분석하면 백악기 진안 분지에 속하며 옥천 습곡대의 경계부에 있다. 이곳은 쥐라기의 대보 조산 운동과 백악기 후 조산운동이 겹쳐 지질이 복잡하다. 기반암은 변성 퇴적암류이다.

임실 하가 유적의 지층과 문화층은 다음 표와 같다.

구석기 문화층은 신석기 문화층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신석기 문화층은 구석기 문화층을 파손하고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며, 이 유적에서 신석기 문화층은 짙은 회색으로 흙의 질감과 색깔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 지층 | 지층 이름 | 지층 두께(㎝) | 문화층 | 특징 |
|---|---|---|---|---|
| 1 | 갈흙층 | 15~20 | | 경작 |
| 2 | 명갈색 찰흙층 (7.5YR brown 4/3) | 40~50 | 위 문화층 | 돌날몸돌, 슴베찌르개, 모룻석기, 나이프형석기 등 19,700~19,500B.P. |
| 3 | 토양쌔기가 발달한 암갈색 찰흙층 (7.5YR brown 5/4) | 50~70 | | |
| 4 | 암갈색 모래질찰흙층 (7.5YR strong brown 4/6) | 35~60 | 아래 문화층 | 산성화산암제 뗀석기 |
| 5 | 황갈색 모래질찰흙층 (10YR yellowish brown 5/6) | 30 이상 | | |
| 6 | 적갈색 자갈벌모래층 | 130 이상 | | |
| 7 | 기반암 풍화토층 | | | |
| 8 | 기반암(응회암) | | | |

〈 임실 하가 유적의 지층과 문화층 〉

### 3) 석기 환경

45) LGM, Last Glacial Maximum

유적지의 주변에는 수계를 따라 노두가 노출되어 있다. 이는 수계에 의한 침식이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됨을 의미하며, 현재와 구석기시대의 수계환경이 다르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로 인하여 유적은 U자형 수계의 안쪽에 위치하여 석재로 쓰일 자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하가 유적지의 석기 돌감의 종류는 백악기 화산암류(유문암, 안산암 등), 변성암류(규암, 편암 등), 맥암류(맥석영, 반암 등) 등이다. 이의 공급원은 백악기암층(퇴적암류/화산암류/맥암류)과 진안층군을 구성하는 다양한 역암들이다.

### 3. 발굴조사 과정

제1차 시굴 조사는 2006년에 구석기 문화층의 분포 진위와 범위 측정을 위해 진행되었다. 발견 당시 이전부터 경작이 이루어져 문화층의 파괴가 우려되었으며 밭에 드러난 석기 중 유문암제 석기는 훼손이 진행 중이었다. 조사 결과 문화층의 범위는 약 50,000㎠의 대규모 유적이며 돌날석기문화층과 그 이전의 유물층의 두 개의 문화층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만 보고된 모뿔석기가 슴베찌르개와 함께 출토되었다.

제2차 발굴조사는 1차 조사의 좁은 발굴 면적으로 전체 문화상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전 조사에서 발굴된 슴베찌르개와 나온 모뿔석기의 중요성으로 자세한 성격 규명을 위한 추가 발굴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구석기 위 문화층의 석기 제작터에서 2,700여 점의 석기가 발견되었으며 신석기 시대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제3차 조사는 유적 보존 정비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사 당시 훼손 방지를 위하여 꼬챙이와 호미로 일정하게 5cm씩 흙을 걷어내며 조사하였다. 그러나 높은 날씨에 문화층인 명갈색찰흙층이 굳고 유물의 훼손이 심해지자 땅에 수분을 주는 방식을 이용하여 발굴을 진행하였다. 발굴된 유물은 세척해 확인했고, 유물의 위치를 광파 측정기로 삼차원 기록, 칸별로 눈금 종이에 표시 기록하였다. 또한, 발굴 모습 촬영으로 지층양상을 기록에 남겼다. 이 조사에서는 석기 제작 터와 일본의 고유석기로 알려진 나이프형석기를 비롯한 4,900여 점의 석기가 발견되었다.

제4차 발굴조사는 2010년에 이전의 조사에서 빠진 언덕 정상의 밭둑을 조사하기 위해 착수하였으며 이곳에서 10,4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밀집도가 높은 수치이며 이 중에서 23점의 슴베찌르개가 발견되었다.

제5차 발굴조사는 구석기 문화층의 미조사 범위와 신석기 유구를 조사할 목적으로 2011년 시행되었다. 이 조사로 석기집중부 여덟 군데 발견하였으며 하가 유적의 절대연대인 좀돌날석기 단계의 유적인 좀돌날몸돌과 좀돌날[46]의 제작지가 발견되었

46) 몸돌에서 좀돌날떼기 수법으로 떼어내어 떨어져 나간 조각.

다. 또한, 신석기 유물로 질그릇 조각 수 점과 뗀 화살촉이 1점 출토되었다.

## 4. 발견 유물

### 1) 구석기 문화층

구석기 문화층에서의 유물은 돌날몸돌[47], 좀돌날몸돌[48], 돌날, 좀돌날, 격지[49], 조각돌, 부스러기, 모룻돌, 망치돌, 쪼인 흔적의 자갈, 도구와 자갈돌 등의 종류가 발굴되었다.



〈 임실 하가 유적 출토 석기 〉

석기 구성은 조각돌과 부스러기는 약 60%를 차지하며 돌날과 격지가 약 30%를 차지한다. 또 몸돌류가 그 뒤를 잇고, 도구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돌감의 종류와 비율은 산성 화산암이 약 80%이고 석영과 규암이 약 8% 그리고 사암, 편암, 셰일, 수정 등은 극히 일부 해당한다.

출토된 도구의 종류는 먼저 사냥용 도구, 가공 도구 그리고 이외의 여러 가지 망치, 갈린 자갈 및 작은 절구 모양의 석기 등으로 나뉜다. 사냥용 도구로 슴베찌르개, 나뭇잎모양찌르개, 모뿔석기와 나이프형석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가공 도구로는 음식을 가공하는 등으로 이용되는 새기개, 밀개, 긁개, 홈날, 톱니날, 부리날과 뚜르개가 출토되었다.



〈 모뿔석기 〉

제5차 조사에서 하가 유적의 절대연대인 좀돌날석기 단계의 유물인 좀돌날몸돌과 좀돌의

47) 돌날을 떼어내도록 다듬은 몸돌이나, 간접 떼기로 돌날을 떼어내고 남은 몸돌.
48) 좀돌날떼기 수법으로 다듬거나 좀돌날을 떼어낸 몸돌.
49) 몸돌에서 떼어 낸 돌 조각.

제작지가 발견되었다. 좀돌날몸돌은 그 전 지표에서 발견된 한 점과 5차 조사 당시 5점이 확인되었다. 또 좀돌날은 잔손질된 것을 포함하여 11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전의 조사 범위 중 가장 동쪽 정상부에서만 좀돌날석기의 제작지가 확인되며 좀돌날석기의 출토구역이 구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나이프형석기〉

자갈돌에는 갈리거나 쪼인 자국이 남아 있으며 제3차 발굴에서 나온 갈린 자갈 여러 점 중 한 점은 위아래 면이 곱게 갈려있었다.

그 중 색깔과 질감이 같은 몸돌, 돌날몸돌과 격지는 망치와 함께 모여 있는 양상이 있으며 그중 산성 화산암제 몸돌과 격지는 서로 붙어있는 형태도 나타났다.

또 슴베 부위만 남은 슴베찌르개가 출토되었다.

임실 하가 유적에서는 일본의 구석기 유물과 같은 형상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제1차 조사에서 모뿔석기가 발굴되었으며 제3차 조사에서 일본 고유의 석기로 알려진 나이프형석기가 발굴되었다. 또 제5차 조사에서는 일본 규슈에서 이측연가공의 슴베찌르개로 분류되는 예가 출토되었다. 임실 하가 유적은 유일하게 나이프형석기와 모뿔석기가 슴베찌르개, 나뭇잎모양찌르개와 함께 발견된 유적이다.

**2) 신석기 문화층**

제5차 조사에서 임실 하가 유적의 신석기 유적이 발굴되었다. 신석기 문화층에서 질그릇 조각 수 점과 뗀 화살촉 1점이 출토되었다.

## 5. 역사적 의미

임실 하가 유적은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 중 동북아시아의 후기 구석기 문화의 전형을 잘 보여 주는 대규모 석기 제작 터로 20,000년 전 후기 구석기인의 생존에 필요한 도구의 체계를 밝히는 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실 하가 유적의 석기 갖춤새는 사냥용 도구와 가공 도구, 갈린돌과 돌확모양석기, 곱게 갈린 면의 자갈 및 작은 절구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석기 갖춤새는 하가 유적이 석기 제작에 국한되지 않고 채집 물과 사냥감의 처리와 가공, 뼈나 뿔 연모의 제작, 식물의 가공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진 주 살림터였음을 알 수 있다.

임실 하가 유적에서는 일본 고유의 석기로 알려진 나이프형석기와 모뿔석기, 이측연가공의 슴베찌르개의 발굴과 나이프형석기, 모뿔석기가 슴베찌르개, 나뭇잎 모양 찌르개와 함께 발견된 유일한 유적으로 일본 후기 구석기 문화의 원류의 규명과

구석기시대 한일 양 지역의 문화교류와 인류 이동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이기길, 2008, 「임실 하가 유적의 발굴과 성과」
이기길, 김은정, 김수아, 2011, 「임실 하가 유적 5차 조사」
이기길, 차미애, 김수아, 2008, 『임실 하가 유적』, 조선대학교 박물관
정보현, 2016, 「임실 하가 후기구석기유적의 돌날 제작기법 연구」
장용준, 2011, 「日本 九州出土 角錐狀石器의 技術的 起源 -南部를 中心으로-」
장용준, 2010, 「일본나이프형석기의비판적검토 -연구사와용어를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물관 누리집, 유적-임실 하가 유적, 유물-모뿔석기, 나이프형석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찌르개, 좀돌날, 돌날몸돌, 격지

# < 익산 개관 >

20학번 채서현



<호남읍지_익산군>

익산(益山)은 호남(湖南)의 관문으로 전라북도 서북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동쪽으로는 완주군, 서쪽으로는 군산시, 남쪽으로는 만경강을 경계로 김제시와 전주시, 북쪽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청남도 부여군과 논산시에 접하고 있다. 명칭의 유래는 삼국시대 마한에 속해 건마국이라 불린 것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백제 시조 온조왕이 마한을 병합하면서 금마저(金馬猪)라 불리게 되었다. 1344년 고려 초 익주로, 조선 태종 13년(1413) 전국 행정구역을 8도로 개편하면서 익산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익산 시내는 이리(裡里)라고 불렸는데 이리라는 지명의 유래는 갈대가 어우러진 속에 멀리 보이는 마을을 뜻하는 솝리, 솜리라는 지명을 한자로 바꾼 것이다. 노령산맥의 지맥인 천호산과 미륵산이 동부 지형을 이루고 있고, 서북부에 함라산 줄기가 이어져 남서로 향하는 구릉과 대, 소하천이 비옥한 평원을 이루고 있다.

## 1. 익산의 역사

익산은 삼한시대 건마국으로 불리는 마한 연맹체의 부족국가로 최초 존재하였지만 백제에 의해 멸망되었다. 이후 옛 건마국 자리에 금마저군, 감물야현, 지량초현 등 3개의 도시가 세워졌다. 금마저군은 금마군으로 감물야현은 함열현으로 지량초현을 여량현과 야산현으로 분리되었다. 고려 말 금마군이 익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며 당시 함열에 속해 있던 용안이 용안현으로 분리가 되어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 되었다.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익주는 익산군으로 바뀌었고 여량현과 야산현을 합해 여산도호부로 승격시키면서 익산군, 여산도호부, 함열현, 용안현 4개의 행정구역 체제로 구성되었다. 1895년 23부제를 실시하면서 여산도호부가 여산군으로 함열현과 용안현이 각각 군으로 승격되었지만 1914년 일제의 부군면통폐합 정책으로 인

해 4개의 지역을 하나로 합쳐 통합해 익산군이 되었다.

## 2.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에서는 백제의 문화재가 있는 도시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미륵사지, 미륵사지 석탑, 왕궁리유적 등 백제의 전성기 유적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문화재를 바탕으로 익산이 백제의 수도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미륵사지는 사적 제105호로 동아시아 최대의 사찰터 중 하나이다. 미륵사지석탑은 국보 제11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다. 왕궁리 유적은 사적 제408호로 백제 최고의 정원 유적, 석축, 공방터, 화장실 등 백제 왕궁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왕궁리오층석탑 역시 국보 제289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고고학적 유적과 건축물을 통해 백제의 고유한 문화, 종교, 예술과 더불어 불교문화 확산에 대한 증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 3. 익산 문화재 현황

익산 용화산 서록에서 출토된 것으로 확인된 비파형동검을 비롯하여 다송리유적, 용제동 이제마을, 왕궁면 평장리, 신동리, 금마 오금산 등에서 다량의 청동기 관련 유물들이 조사되고 있다. 백제에 병합된 이후 익산은 백제의 마한 본거지로 영역 확장과 전초기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 이 지역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분, 횡구식석곽분, 횡혈식석곽분 등을 통해 묘제의 변화상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웅포리 고분군, 입점리 고분군, 성남리 고분군 등이 존재한다. 백제 말기에는 미륵사지 석탑, 왕궁리유적, 왕궁리오층석탑, 쌍릉, 제석사지 등이 만들어졌고 이는 현재 유적으로 남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 미륵사지 해체 과정에서 사리봉안기가 발견됨으로써 미륵사의 건립 목적과 연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또한,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의 모습을 간직한 석탑이 현존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익산 지역에 산재한 백제유적지구는 동아시아 교류를 주도한 백제 문화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 참고문헌 ]**

지병목, 2010,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익산 왕궁리유적의 가치와 의의」, 『馬韓, 百濟文化』, 19

정재윤, 201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의미」, 『백제문화』, 0 · 54

## < 미륵사지 >

21학번 이준명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위치한 미륵사지는 백제의 무왕(武王)이 왕권 강화와 국력 황장을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백제 최대의 호국사찰이다. 삼국유사에 이르기를 무왕 때 왕과 왕비가 사자사(師子寺)로 가던 중에 용화산(龍華山) 밑에 있는 못에 미륵삼존(彌勒三尊)[50]이 나타났는데, 왕비의 부탁에 따라 못을 메운 뒤 건립되었다고 전해진다. 동서로 172m, 남북으로 148m으로 뻗어 있으며 넓이는 25,000평에 이른다. 동원과 서원에는 석탑을 축조하고 중원에는 목탑을 축조하였다. 중원과 동원에 위치한 탑은 기단 부분만이 남았으며, 서원의 석탑은 반파된 상태로 있다.



<미륵사지 전경>

### 1. 창건 이후의 역사

1974년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탑지(東塔址)가 발견되었으며, 건물지(建物址)는 백제와 고려의 유구(遺構)가 혼합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미륵사지에는 동탑과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보물 제236호인 당간지주(幢竿支柱)[51] 가 있다. 미륵사가 언제 어떠한 이유로 폐사(廢寺) 되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조선 영조 때 선비 강후진 의[52]와유록(臥遊錄)에 “미륵사에 오니 농부들이 탑 위에 올라가 낮잠을 자고 있었으며 탑은 백여 년 전에 부서졌다더라”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임진왜란 당시 화를 입은 것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륵사지는 17세기경 폐사되었다고 추측되며, 복원 전까지 석탑과 당간지주 등 일부 석조물만 남아 있는 상태였고, 사역(寺域)은 경작지와 민가로 변한 채였다.

---

50) 미륵을 본존으로 모시고 양옆에 모셔 놓은 협시불을 포함한 삼존불
51) 당간을 세우기 위한 지지대
52) 1685~1756, 조선 후기 전라북도 고창 출신 실학자

## 2. 인물탐구 – 백제 무왕(武王)

백제 30대 왕인 무왕은 600년부터 641까지 42년 동안 재위했다. 무왕 즉위 전 백제는 귀족들은 내분으로 분열되고 왕실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져 내외적으로 약화된 상황이었다. 앞서 재위했던 혜왕과 법왕이 각각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불안이 더욱 심화된 상태에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무왕은 소백산맥을 넘는 통로의 확보에 치중했다. 그 후 무왕 2년(602)년과 무왕 3년(603)에는 신라와 아막산성(阿莫山城)전투가 있었다. 이 전투에서 좌평(佐平) [53] 해수(解讎)는 4만의 병력으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가 대패로 끝나며 무왕은 귀족세력을 제압할 명분을 얻었고 점차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수(隋)나라와 고구려가 전쟁을 벌일 때 백제는 수를 도와 고구려의 후방을 공격하도록 종용받았으나, 오히려 무왕은 신라를 견제해 고구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했다. 무왕은 신라 서쪽을 침공했고 백제군을 낙동강 방면까지 진출시키며 신라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신라는 당과 유착해 추후 정치적 안정과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로 국제 문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동요되었던 백제 왕권은 무왕에 이르러 급속히 회복되어 백제는 안정기를 넘어 번영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신라와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니었으나, 충분한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신라를 압박하며 왕권을 강화했던 무왕은 재위 후반기 익산 지역을 중시 여겨 별도를 운영하고 천도를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왕궁평성, 제석사, 미륵사 등을 창건하였다. 그 중 미륵사는 미륵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처럼 백제를 구제하고자 했던 무왕의 뜻이 담긴 사찰이다.

## 3. 역사적 배경

### 1) 미륵사지

미륵사지의 창건에 대해 삼국유사에서는 “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로 향하는 길에 용화산 밑에 있는 연못가에 이르렀는데 미륵 삼존이 연못 한가운데 나타나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부탁하기를, ‘이곳에 큰 가람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제 소원입니다.’라고 부탁하였다. 왕은 그것을 허락하였다. 지명법사에게 못을 메울 방법을 물어보니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우고 평지로 만들었다. 이에 미륵 삼존을 법상(法像)으로 하여 전, 탑, 낭무 를[54]각각 세 곳에 축조하고, 그 절의 이름을 미륵사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53) 백제의 최고위 관직
54) 정전(正殿) 아래로 동서에 붙여 지은 건물

### 2) 미륵사

미륵사의 창건 배경은 백제 무왕의 통치로 강성해 가는 백제의 모습을 상징하며 신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 창건되었기에 호국 사찰으로 볼 수 있지만 창건 설화 자체는 미륵신앙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륵경전에 의하면 미륵께서 사자좌 에[55][56] 좌정하며 있다가 바라문가(婆羅門家)로 하생한 뒤 용화수(龍華樹)[57] 아래서 성불(成佛)하고 3번 법회를 열어 중생을 구제한다고 했으며, 그곳 근처에 있는 못에는 용왕이 살고 있어 매 밤마다 비를 내려 땅이 비옥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을 미륵사의 창건 설화와 비교해보면 사자사는 사자좌를 의미하며 용화산은 용화수를 의미하고 용화삼회(龍華三會) 가 미륵[58] 삼존상을 본 따 전, 탑, 낭무를 3개씩 축조한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르면 미륵사가 용화삼회의 미륵 사상을 기반으로 건립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선조, 4년(570) 『양곡집(陽谷集)』에 실려 있는 시(詩)의 내용에 따르면 운희(雲稀)라는 주지가 미륵사를 경영하고 있었으며 목탑에 대한 언급은 없이 석탑의 웅장함만을 강조하는 것을 보아 목탑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고 석탑만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영조 14년(1738) 『와유록(臥遊錄)』에는 미륵사에 대해 일부 기록되어 있다. 7층 석탑이었으나 벼락으로 인해 반파되었고 유구의 형태로 남아 농부들 석탑에서 낮잠을 잔다는 표현으로 폐찰된 시점을 17-18세기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미륵사지 석탑을 실측하고 콘크리트로 보수하였으며, 1933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령을 공포하여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해방 이후 1970년대 중반 동탑지 주변 발굴 및 정비 공사, 1980년대에는 전면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발굴 유구들을 전시하기 위해 전시관이 사역 남서 측에 설립되었고, 1998년에는 대대적인 정비 공사 및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보수 공사가 시작되었다.

## 4. 건물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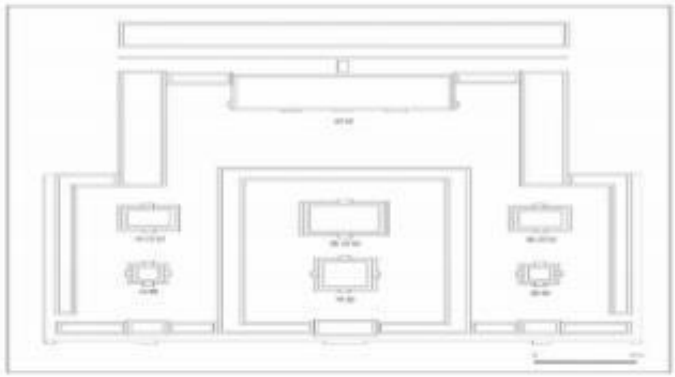
### 1) 미륵사

미륵사는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의 가람배치와 달리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으로 구성된 1탑 1금당의 3원 병렬형이다. 탑과 금당이 일렬로 짝을 이루는 형태가 동서로 3개가 병렬되면서 중앙 북쪽에 하나의 강당과 양측 면에 승방이 위치한 모

55) 부처가 앉는 자리, 혹은 덕이 높은 고승이 앉는 자리
56) 인도의 브라만의 한자 음차
57) 용을 닮은 나무의 이름, 미륵보살이 이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짐
58) 미륵이 56억 7000천만년 후 용화수 밑에서 성불하여 세상에 나타나 세 차례의 설법을 함을 말함

습으로 언급된다.

탑과 금당의 규모, 중원이 목탑인 것에 비해 동서의 탑은 석조탑으로 축조된 점, 중원이 넓고 개방된 동서에 비해 폐쇄적인 모습이다.



<미륵사 가람배치>

2) 미륵사지

미륵사지 석탑의 무왕 40년(649) 축조되었고, 현재 남은 6층까지의 높이는 약 14.2m이며 기단의 전체 폭은 약 12.5m이다. 기초 부분에서는 판축기법[59]을 이용하여 탑의 하부를 다졌다. 1999년 시추조사결과 상부로부터 매립층, 충적토층, 기반암 풍화대[60] 순서로 지층이 존재하며 9.8~11.4m 정도 깊이까지 매립층 및 충적토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륵사지 석탑의 기단(基壇)은 이중 기단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지 내 금당지를 비롯하여 목탑지와 동탑이 세부기법에서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이중기단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하층기단은 지대석과 갑석으로만 구성된 형태이며 상층기단은 건물을 짓기 위한 터를 빙 둘러쌓은 돌인 지대석(址臺石), 상층 기단과 하층 기단의 주축부로 네 면을 이루는 벽체인 면석(面石), 이들 위에 올려둔 납작한 돌인 갑석(甲石)으로 구성되 있다. 미륵사지 석탑의 기단부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측면 중앙부에는 각각 계단 이 존재했고 통로 입구에는 문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던 것을 보아 탑에는 사람이 다니던 내부로 통하는 십자가 모양의 통로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기둥석은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민흘림기법과 양쪽 모서리 끝을 약간 높인 귀솟음기법이 반영되어 있다. 기둥석 하부에서는 목조건물과 같이 별도의 초석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상·하 인방석



<미륵사지 석탑>

59) 접착력이 강한 서로 다른 종류의 흙을 교대로 부어 꾹꾹 눌러 기초를 다지는 기법
60) 암석이 풍화되어 흙으로 변해가는 과정중에 있는 토지

(引枋石), 기둥 상부의 평방석(平枋石), 포벽석(包壁石) 등으로 구성되었다. 옥개부(屋蓋部)는 목조건물의 지붕과 같이 모서리의 끝부분이 살짝 치켜 올라가고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

### 5. 역사적 가치

미륵사지는 1966년 6월 22일 사적 제150호로 지정되었다. 미륵사는 백제의 최대 호국 사찰로 백제가 패망하는 순간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중요한 백제의 자료이며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온돌 유적과 기와, 토기, 금속, 목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국보 제11호로 지정된 미륵사지 석탑이 가지고 있는 목탑 축조 양식은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발전해 왔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양식의 정확한 편년을 알 수 있다면 그 시대를 중심으로 건축양식의 변천사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륵사지석탑의 건립 연대가 무왕 40년(639)로 밝혀지면서 7세기 중반의 석탑에서 사용된 목조 기법을 추정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의 남지 않은 고대 목조 건축물의 양식을 확인하고 다른 역사적 사료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요한 유적이다.

**[ 참고문헌 ]**

김원호, 2011, 「미륵사지석탑에 나타난 목조기법 연구」
이재화, 2020, 「益山 彌勒寺址에 관한 연구」
조은경, 2011, 「미륵사지석탑의 구조체계와 축조 해석」
일연, 1281, 『삼국유사』
김부식, 1145, 『삼국사기』

## < 국립익산박물관 >

21학번 강성훈, 21학번 이준명

미륵사지가 발견된 이후 장기간 동안 발굴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백제의 사찰 배치와 규모가 확인되었고, 창건기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다량의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효율적으로 보존·전시하고 활용하고자 1997년 전라북도 주체로 국립 익산 박물관의 전신인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이 개관되었다.



<국립익산박물관 입구>

### 1. 설립 배경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및 보수작업에서 다량의 사리장엄구가 출토되었고, 이를 시발점으로 2015년 7월,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이 세계문화유적에 등재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립박물관의 설립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기존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을 국립 익산 박물관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오늘날의 국립 익산 박물관으로 전환되었다.

### 2. 현황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보수 작업 중 다량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고, 2015년 7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미륵사지를 비롯해 익산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하고자 2015년 12월 도립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서 국립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2019년 국립 익산 박물관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22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사비 백제시대 익산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는 익산백제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는 미륵사지실, 익산지역에서 출토된 다양한 시대의 유물을 전시하는 역사문화실이 상시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익산시를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기관을 목표로 해 미륵사지 출토품, 익산 백제문화, 고대사원 등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전시 및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 3. 주요 시설

국립 익산 박물관은 미륵사지실, 익산백제실, 역사문화실의 총 3개의 상설 전시실을 운영 중에 있다. 미륵사지실은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입장할 때 양쪽에 치미가 전시되어 미륵사에 방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며 내부에서는 소형으로 복원된 미륵사의 모형을 볼 수 있다. 익산백제실은 무왕의 꿈이 담긴 익산을 보여주는 곳이다. 안에서는 쌍릉의 내부 모습을 전시하여 무덤방의 안쪽까지 볼 수 있으며 복원된 제석사의 모형을 관람할 수 있다. 역사문화실에서는 익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이다. 이곳에서는 유물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여러 자기의 모습에 관한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 4. 주요 전시물

#### 1) 금제사리봉안기

사리봉안기는 사리를 모시는 내력을 적은 글이다. 사리를 공양하기 위해 석탑을 조성하는 과정이나 사찰의 창건 배경을 기록하곤 한다. '사리봉영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금제사리봉안기는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중 첫 번째 심주석[61](心柱石) 윗면 중앙에 설치된 사리공 및 기단부에서 사리장엄이 발견되며 함께 발견되었다. 이 사리봉안기에 백제 무왕의 왕후가 재물을 공양하여 미륵사를 창건하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기해년(639)년에 사리를 봉안하고 탑을 세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발원자, 건립 배경, 건립 시기가 정확히 기록된 중요한 자료이다.



<금제사리봉안기>

#### 2)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1965년에 해체되었던 왕궁리 오층석탑 제1층 옥개석 중앙부와 기단부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 사리장엄구는 불탑에 사리를 봉안할 때 사용되는 용기, 공물, 공예품 등을 총칭한다. 제작 시기는 백제 무왕(600~641년) 시기 때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유물이며, 각종 금속 제품은 공예적 측면뿐만 아니라

61) 통행로의 중앙에 놓여 탑의 기둥 역할을 하는 석재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외함은 사리 장엄구로서, 경판의 보호를 위해 넣어둔 것이라고 한다.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 3)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병

왕궁리유적 오층석탑에서 발굴된 금제 사리함에 있는 유리로 만든 사리병이며 제작시기는 통일신라시대 후기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출토된 고대 유리제 사리병 중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사리병을 보호하던 바깥쪽의 외합은 내합과 유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되어 장식도 없고 칠도 벗겨져있지만, 녹색 사리병이 있었던 내합은 뚜껑 윗면에 반쯤 펴있는 연꽃 봉오리, 주변에는 구슬 무늬가 새겨져 있다. 또한 뚜껑 윗면에 손잡이 역할을 하는 금고리를 제작하여 달아놓았으며, 국화 문양을 새겨 모두 도금 상태가 완전하다고 한다. 높이는 7.7cm이다.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병>

**[ 참고문헌 ]**

김상현, 2009, 「백제 무왕대 불교계의 동향과 미륵사 = The Buddhist Community and Mireuksa Temple under the Reign of King Mu in the Baekje Kingdom」, 『한국사학보』, 0 · 37

신수진, 장영훈, 2020, 「비어있으나 가득찬 공간, 역사를 발굴하는 시·간·광·산 : 국립익산박물관」, 『教育施設(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27 ·

1
한정호, 2009,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과 사리장엄구 연구 = A Study on the Fifth Stone Pagoda of Wanggoongri in Iksan and the Sarrira Reliquary」, 『新羅史學報』, 0 · 1
엄철호, 「국보 제123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55년만에 익산 귀환」, 『전북일보』, 2020.01.06
이종근,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서 나온 금강경판은 순금일까」, 『새전북신문』, 2016.03.10.

# < 진구사 >

20학번 박성군

## 1. 유적지 소개

진구사는 열반종주(涅槃宗主)라고 알려진 고구려의 승려 보덕의 제자 적멸과 의융이 창건한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에 위치한 사찰이다. 1992년까지는 무명의 절터였으나, 터에서 <진구사珍丘寺>라 표기된 기와가 출토되면서 진구사로 판명되었다. 이곳에는 임실의 유일한 보물인 진구사터 석등을 포함하여 비로자나불, 철불 등이 남아있다.



<진구사터>

## 2. 진구사의 역사

진구사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사료는 『삼국유사』[62]로, 사료에는 승려 보덕이 고구려에서 백제 완산주 고대산[63]으로 거처를 옮긴 이야기와 함께 그의 제자들이 세운 사찰 이름이 나온다. 진구사는 그 중의 하나로, 이를 통해 진구사의 창건 시기를 600년대 후반 통일기로 추정하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석등과 비로자나불, 철불 등은 통일신라시기에 진구사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도 진구사의 명맥은 이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희종의 넷째 왕자인 경지스님이 "진구사 주지 경지선사"(보경사원진국사비寶鏡寺圓眞國師碑)에 주석하였고 고려 말 권문세족 조인규의 아들 의선도 주지로 있을 정도였다.[64] 진구사의 절터에서는 양질의 청자와 조인규 가문이 시주한 기와가 나와 앞의 기록을 증명하고 있다.

조선시대 태종이 고려 사찰을 재정비했을 때, 진구사는 중심 사찰인 자복사가 되었다.[65] 전국에서 88개 밖에 선정되지 않은 와중에 자복사가 된 것은 당시에도 명찰(名刹)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종 때 선교양종(禪敎兩宗) 통폐합 정책[66] 이후 기록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유추하건대 진구사는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로도 건물과 유물들은 남아있었으나, 임진왜란 전후 사찰이

62) 권 제3 제3 흥법 보장봉로 보덕이암
63)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 불우조를 볼 때, 고대산은 전주 고달산인 듯하다.
64) 「조인규묘지명」, 1308
65)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12월 2일
66)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 1일

소실되어 현재는 터와 석등, 불상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 3. 인물 탐구 - 원정국사 경지

원정국사 경지는 고려 희종의 넷째 왕자로, 『고려사』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해당 사료에는 "대선사 경지"[67]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대선사란 고려·조선 시대 선종(禪宗) 승려의 법계(法階) 가운데 하나로서, 대선사에 오른 자만이 국사(國師)와 왕사(王師)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경지는 1220년(고종 7년)에 출가해, 고려 중기의 국사(國師)이자 능엄선의 주창자인 승형의 제자가 되었다. 그 뒤 진구사에서 주지, 선사 및 대선사를 차례대로 지내며, 마침내 원정국사에 봉해졌다.

1276년(충렬왕 2년)에 경지는 능엄경[68]을 널리 퍼트리고자한 승려 보환이 저술한 『능엄경신과』 2권이 인쇄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간행하였다. 또한 『제왕운기』를 저술한 고려 말의 학자 이승휴를 가르치기도 했다.

### 4. 유물 알아보기

#### 1) 임실 진구사지 석등



<임실 진구사지 석등>

임실 진구사지 석등은 보물 제 267호로, 임실 지역의 유일한 보물로 선정된 유물이다. 이 석등의 구조를 크게 5가지로 나누자면 받침돌, 간주석, 화사석, 지붕돌, 상륜부로 구분할 수 있다.

받침돌은 8각 지대석과 그 위에 놓인 하대 그리고 연화대석으로 더 나눌 수 있는데, 하대는 8각 8면으로, 면마다 면상을 새기고 위아래로 굽을 돌렸다. 그 위 연화대석은 복엽의 복연이 조각됐고 귀꽃도 함께 조각돼 있어 신성한 느낌을 준다.

간주석은 중앙에 고복형의 양각대가 있으며, 상하로 대칭되게 연화무늬를 조각하여 기교와 장엄함이 연출되도록 하였다. 화사석은 8면에 모두 장방형 화창을 내어 부처의 진리를 상징하는 불빛이 멀리 퍼져나가도록 했다. 지붕돌은 귀퉁이마다 큰 꽃이 장식되어져 있어, 당시 석조 기술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상륜부는 일부만 남아있으며, 팔각형 노반석(露盤石)과 그 위에 다른 부재를 받쳤던 별도의 부재가 놓

67) 『고려사』 권92 열전 권제4 종실 희종 소생 왕자
68) 불교의 이치와 수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불교경전. 소위 불교입문교재.

여있다.

이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되었고 비슷한 시기인 남원 실상사 석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규모와 안정적인 비례를 자랑하고 있다. 진구사지 석등을 통해 진구사의 위용을 엿볼 수 있다.

**2) 평양조씨세보**

평양조씨세보는 평양조씨 집안의 기록물로, 「조인규의 묘지명」, 「조인규의 사당기」 등도 여기에 실려 있다. 특히 묘지명과 사당기는 진구사와 평양 조씨 가문의 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묘지명과 사당기>**

*넷째 의선은 천태종에 투신하여 선과의 상상과에 합격하였는데, 지금 선사가 되어 진구사 주지로 있다. (1308)*

*손자는 몇 명이 있다…*
*천이는 진사에 급제하여 지금 밀직부사이며, 다음 천유는 원윤이다… 보해는 머리를 깎고 천태학 시험에 합격하였다…*
*만호의 장남 충신은 지금 선무장군 관군만호 삼사좌윤이다… (1341 이후)*

**3)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하 비로자나불)은 처음에 2기의 좌대만 발견되었다.(1900년경) 좌대 중 하나의 아래, 중간, 윗받침은 모두 8각을 이루며, 각 면에 무늬를 두었다.-현재는 자세한 모습을 알 수 없을 만큼 희미해졌다.- 다른 하나의 좌대도 전체적으로 8각의 형태이나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중간받침은 4면에 사각창의 형태를 움푹히 표현했고, 반원형의 윗받침에는 솟은 연화무늬가 새겼다. 본래 좌대만 문화재로 선정되었지만, 후에 석불이 발견되고 석불과 좌대가 짝이 이루어짐을 보고 하나의 문화재로 지정했다.



**<임실 진구사지 석등>**

### 4) 기와와 막새

진구사터에서는 기와조각, 막새와 청자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진구사터의 기원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조인규 가문과 진구사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므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연꽃무늬 수막새와 넝쿨무늬 암막새>

#### (1) 연꽃무늬 수막새·넝쿨무늬 암막새

가장자리에 구슬무늬가 둘러진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기와이다. 발굴조사[69] 결과, 적멸과 의융이 창건할 당시의 것은 아니며 9세기 말 비로자나불을 조성할 무렵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무늬뿐만 아니라 용 얼굴 무늬, '만'卍 글자 무늬 등 다양한 무늬가 진구사터에서 발견됐다.

#### (2) 「조삼장」이 새겨진 암막새

막새에는 조삼장(趙三藏)과 만호조충(万戶趙忠)이라는 글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 조삼장(趙三藏)은 조인규의 아들 조의선으로, '삼장'은 원나라 황제가 조의선에게 내린 별호이다. 만호조충(万戶趙忠)은 조인규의 손자 충신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막새들은 조인규 가문과 진구사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유물이다.



<「조삼장」이 새겨진 암막새>

### 5. 진구사의 역사적 가치, 의의

600년 후반부터 1400년대 중엽까지 80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진구사는 임실의 명찰(名刹)임과 동시에 통일신라 때부터 시작된 불교 문화의 명맥을 잇는 중요한 사적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구사는 임실 유일의 보물 제267호인 '임실 진구사지 석등'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82호인 '비로자나불'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사적으로도

69) 전북대학교 박물관, 2003, 『용암리사지 발굴조사보고서 II』

두드러지는 가치를 지닌다. 작년에는 '임실 진구사지(任實 珍丘寺址)'가 전라북도 기념물 제144호로 지정되면서 해당 구역 내 다양한 문화재들 역시 재조명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립전주박물관, 2011, 『전북의 역사문물전-임실』
전북대학교 박물관, 2003, 『용암리사지 발굴조사보고서 Ⅱ』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 군산 개관 >

20학번 정다연



<군산 전경>

군산은 전라북도 북서부 말단, 금강의 왼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호남평야를 뒤에 두고 동쪽으로는 익산시, 서쪽은 황해, 남쪽으로는 만경강(萬頃江)을 경계로 김제시, 북쪽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청남도 서천군과 접하고 있다. 한반도의 허리이자 서해 중부 가장자리에 위치한 군산은 단군 이래 최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의 중심도시이자, 다양한 국제항로가 열려 있는 개항 112년의 항구도시이다. 군산시는 함라산맥의 능선으로 대부분 구릉지와 충적평야로 되어있으며 북동쪽으로 해발 210여m의 장계산, 오성산, 월명산을 뒤에 두고 위치한 중부 서해안의 해상관문 도시이다. 내륙에는 곡창지대인 임옥평야가 있으며, 서해에는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어장이 조성되어 있고, 16개의 유인도와 약 40여 개의 무인도가 해상에 펼쳐져 있으며 중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의 전지 기지로 신흥 중소산업도시이다. 군산 부근해역은 해안선의 굴곡이 비교적 완만하다. 또, 해안선 부근에는 해발고도 200m이상의 산들이 있지만, 섬 지역에는 높은 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군산은 해안지역이라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또, 겨울철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될 때는 돌풍 현상과 더불어 소낙성 눈이 자주 내린다. 군산은 서해안과 접해있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 특성을 보인다.

## 1. 군산의 역사

### 1) 군산 역사의 연혁

군산의 신석기 문화는 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중 해안가와 섬에 형성된 조개무지를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 내흥동 사옥(沙玉) 패총[70]에서 신석기시대의 특징적 유물인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금강 하구와 서해안 지방에 신석기인들이 생활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군산지역의 문화적 특징은 다양한 무덤이 새롭게 등장한다. 개정면 아동리와 임피면 축산리에서는 다수의 옹관묘와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또한, 오성산

70) 원시인이 까먹고 버린 조개껍데기가 쌓여 무덤처럼 이루어진 무더기.

등 여러 곳에서 지석묘가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서해안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석묘의 밀집도가 매우 낮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주민이 지석묘보다 옹관묘와 석곽묘를 주된 묘제로 사용하던 세력 집단이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군산은 삼한 중 마한의 영토로 막로국(莫盧國)·만로국(萬盧國)·비리국(卑離國)·임소반국(臨素半國) 등의 소국이 이 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마서량현(馬西良縣)·부부리현(夫夫里縣)·시산군(屎山郡)·피산현(陂山縣)을 통해 중국과 교역 창구 역할과 군사상 요지 역할을 도맡았다. 757년(경덕왕 16)에 시산군은 임피군(臨陂郡)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때 마서량현은 옥구현으로, 부부리현은 회미현(澮尾縣)으로, 감물아현은 함열현(咸悅縣)으로 개칭되어 모두 임피군에 속하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이곳은 해안의 요지인 동시에 대륙 문물의 교류지였다.

군산의 행정구역은 고려시대에 들어 옥구는 옥산으로, 회미는 연강(連江)으로, 임피는 취성(鷲城)으로 변경되었고, 문창(文昌)현이 옥구현 옆에 신설되어 총 네 개의 현이 존재했다. 이후 고려 중기에 문창현은 사라지고 임피현의 기능이 대두되어 김제지역의 만경, 부윤(富潤)현 지역까지 임피현이 관할하게 되었다. 더불어 990년에는 고려 왕조가 조세제도를 시행하며, 임피의 조종포(朝宗浦)에 조운 창고를 설치하고 진성창(鎭城倉)을 임피현 창안에 설치하면서 군산은 서해중부지역 물류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산의 역할은 1380년(우왕 6) 왜구의 대규모 침입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고려 수군은 화약 무기를 사용해 군산 앞바다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에 옥구현에 회미현을 병합하면서 군산을 옥구와 임피현 중심의 행정체제로 정비했다. 또한 1397년(태조 6)에는 옥구현에 종3품 병마첨절제사[71]가 관할하는 진이 설치될 정도로 군산은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했다. 이후 세종 때 군산도의 수군부대인 군산진을 옥구현 진포로 이전했다. 이후 진포를 군산이라 칭하고 군산도는 고군산이라 칭하게 되었다.

1487년에는 옥구현 북면에 군산창이 설치되었고, 이후 호남의 중요한 조운 창고로 거듭나게 되었다. 군산창이 호남의 중심 조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산이 서해와 만나는 금강 하구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었다. 군산창은 옥구, 진안, 전주, 장수, 태인, 금구, 임실 등 7개 읍의 세금을 보관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칠읍해창'이라 불렸는데 이는 7읍의 조세가 모인다는 의미이다. 조운선과 수많은 장삿배 및 어선이 왕래하던 군산포와 군산창은 자타공인 호남 최고의 항구로서 자리매김했으며, 활발한 상업 활동으로 근대도시로의 발전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71) 조선시대에, 병마절도사에 속한 종삼품 무관 벼슬.

조선시대 군산은 전국 최고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세곡이 모이는 군산창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군산진이 설치되어 경제,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1899년 5월 1일, 군산항이 개항됨과 함께 해안 일대에 조계[72]지를 설치하고, 옥구감리서[73]를 두었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독점되지 않기 위해 군산 조계지를 각국의 공동조계지로 정했다. 당시 식민지 수탈로 몰락한 충청·전라·경상도의 지식인, 자산가, 농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성장하고 있는 군산으로 모였다. 이들은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나라를 빼앗기고 차별받는 동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군산은 일본제국주의의 필요에 의해 왜곡된 성장을 겪었다. 군산 조계지를 설정된 후 한국인들의 가옥과 묘지는 철거되었으며, 공공용지를 제외한 지역은 경매로 거래되었다. 조계지는 군산내항 인근을 중심으로 평지에 격자형 구조로 조성되었다. 군산진이 위치했던 자리에 일본 영사관을 두고 이곳을 중심으로 종으로는 1조통에서 9조통까지, 횡으로는 중심 간선도로에 본정통[74]이라는 일본 도시의 가로명을 붙이며 도시를 형성해 갔다.

일제강점기 군산은 조계지를 원형으로 확장되어갔다. 본정통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지구가 형성되었고 군산역 부근에서는 정미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지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주된 일은 군산항에 운반되어온 쌀의 하역작업을 하는 것이었고, 도로와 건물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조선인들의 거주지는 조계지 밖의 둔율동, 개복동의 산기슭이었다. 이러한 도시공간의 이중구조는 일본인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더불어 민족적, 계층적으로 심화되었다. 군산 시가지[75]는 지배와 피지배, 개발과 소외라는 이중성을 가지며 확대되었다.

**2) 의병항쟁**

일제 침탈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의병들의 의병운동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 그 규모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었다. 그 중에서도 호남 의병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대표적으로 군산 출신의 임병찬이 있다.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은 1906년에 최익현과 함께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일본군에 붙잡혀 대마도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도 의병운동을 계속했고 1912년에는 고종의 밀명을 받아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함으로써 항일투쟁을 지속했다. 그러나 이내 계획이 탄로 나면서 1914년 일본 경찰에 붙잡혀 거문도에 갇히게 되었고 1916년 그곳에서 순국했

72) 주로 개항장(開港場)에 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
73) 조선 후기에 개항장·개시장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아.
74) 일제강점기, 충무로를 이르던 말.
75) 건물의 이어지고, 집합한 지역.

다. 이밖에도 이 지역 출신 의병장으로는 이준영(나운동), 고봉민(옥정리), 문형모(임피면 월하리), 전오풍(수산리), 김덕장(미룡동), 김두안(미룡동)등이 있다.

### 3) 계몽운동

개항 후 군산으로 몰려오는 일본을 비롯하여 열강의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개항장 부근의 조선 상인들은 옥구 군산항 민단을 결성했다. 옥구 군산항 민단은 군산의 대표적인 자강 운동 단체로 교육과 계몽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 단체를 매개로 계몽 단체인 대한협회의 군산지부가 설립되어 교육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객주들이 모여 만든 군산항 객주 상회사는 국채보상운동을 도우며 대한제국의 재정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군산의 계몽운동은 여러 교육기관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 중 옥구 군산항 민단의 후원을 받은 금호 학교가 대표적이다. 1909년 12월, 금호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일진회의 한일 합방 청원서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호 학교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적 민족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 4) 옥구 농민항쟁

군산의 농민들은 일본인 지주의 가혹한 수탈에 맞서 저항했다. 그 중에서도 1927년 11월에 전라북도 옥구 서수면의 일본인 이엽사(二葉社) 농장에서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며 일어난 옥구 농민항쟁은 대표적인 소작농들의 저항으로 알려져 있다.

옥구 농민항쟁은 수확량의 75%를 소작료로 요구한 이엽사 농장에 불만을 가진 소작농들이 서수 농민조합의 간부를 중심으로 소작료 인상에 대해 항의하며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관리인이 계속해서 75%의 소작료를 요구하자 농민들은 소작료 납부 거부를 결정했다. 이에 서수 주재소의 일본 경찰은 농민조합장 장태성을 검거했고, 지도자의 검거에 분노한 소작농 500여명은 임피와 서수주재소를 습격해 검거된 조합장을 구출했다.

그러나 소작농들이 구한 농민조합의 간부들은 군산경찰서의 일본 경찰에 의해 다시 검거되었고, 모두 재판에 회부되었다. 옥구 농민항쟁은 조선인 소작농이 소수의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본인 경찰에게 직접 맞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 2. 군산의 문화재

군산 발산리 석등, 군산 발산리 오층 석당, 구 군산세관 본관, 상주사 대웅전, 불주사 대웅전, 옥구향교 대성전, 임피향교 대성전, 신흥동 일본식 가옥, 어청도 등대,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부잔교) 등이 있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건립되어 군산세관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94년 8월

10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되었다. 2018년 8월 6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5호로 승격되었고, 현재는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개항기 군산항의 모습은 물론 대한제국의 관세 행정 기관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흔적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집인 상주사 대웅전은 1973년 6월 23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었다. 상주사는 606년(백제 무왕 6)에 혜공(惠空)이 창건하였고 그 후 1362년(공민왕 11)에 나옹(懶翁), 1641년(인조 19)에 취계(鷲溪), 1762년(영조 38)에 학봉(鶴峯)이 중수(重修)하였다. 대웅전은 조선 중기의 건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군산시, 2007,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
문화재청 국가 문화유산 포털
전라북도, 2004, 「근대 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 보고서」
이종예, 2019, 「근현대 군산의 생활사 -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 설립과 역사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Vol.2019 No.06

##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

21학번 서은수

### 1. 유적지 소개

조선시대 군산은 호남평야에서 거둔 세곡을 보관·수송하기 위한 군산창이 설치된 경제적 요충지였다. 1899년 군산항의 개항으로, 무역항으로서 황금빛 미래를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식민지 수탈의 근거지로 사용되며 왜곡된 성장을 겪었다. 근대화의 상징인 기찻길이 놓이고 신작로가 뚫렸지만 모두 일제의 약탈을 위한 것이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이 당시 군산의 상처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이다.[76]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전경>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의 내부는 지상 1층 해양 물류 역사관, 2층 독립 영웅관, 3층 근대생활관의 3개 층으로 구성되어있다.[77] 4000여 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시민단체가 기증한 유물 또한 2000여 점이 넘는다. 먼저 로비에 들어서면 재현된 어청도 등대가 있다. 어청도 등대는 대륙진출의 야망을 가진 일본에 의하여 1909년에 건설되었다. 군산항 및 서해안의 남북항로를 통하는 모든 선박들이 이용하는 등대로 조선총독부에서 운영했다.



<재현된 어청도등대>

1층의 해양 물류 역사관은 '국제무역항 군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물류 중심지로 자리 잡아온 군산의 역사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다. 2층의 독립 영웅관은 군산에서 호남 최대로 일어난 3·1만세운동과 악질적인 일본인 농장을 대상으로 벌인 옥구 농민 항쟁을 다루고 전시하고 있다. 3층의 근대생

76) 김은지, 「군산의 아픈과거를 보여주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조세일보』, 2020.01.06.
77) 두산백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활관은 약 40㎢(1200만 평)에 이르는 구마모토농장의 토지 목록, 창씨개명 호적 원부 등 일제의 수탈과 탄압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전시되어 있다. 또한, '1930년 시간여행'을 주제로 당시 내항과 부잔교, 인력거차방, 영명학교, 상가 등 1930년대 군산에 실존했던 건물 11채를 실제 크기로 복원해 일제 강점기 군산의 다양한 풍경도 재현하고 있다.78)

## 2. 역사적 배경

군산은 전라북도 서북단 금강 하류에 위치한 항구로서 조선시대에는 군산창이 설치되어 전라도의 세곡을 모아 수도로 운반했고, 대동법이 실시되는 효종에 이르러서는 호남청이 설치되어 전라도의 쌀을 관리했다. 1899년 개항 당시 군산은 호구 150, 입구 700으로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촌에 불과했다. 쌀이 모여드는 집결지였을 뿐 전통적 상업 도시도 아니었고, 항구로서의 조건도 그다지 좋지 못한 군산이 1899년 5월 1일 개항장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첫째, 일본 자본주의의 성장에 필수적인 저임금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값 싼 미곡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둘째, 금강 중류에 위치하여 원산의 명태시, 대적의 영시와 함께 조선의 3대 시장의 하나로 불려왔던 강경과 충남의 공주와 전북의 전주의 존재를 이유로 들 수 있다. 군산의 개항으로 일본은 재래 대시장인 강경을 통해 손쉽게 상권을 확대할 수 있었고, 구매력이 풍부한 다수의 도시인구를 수입상품의 소비자로 흡수할 수 있었다.79)

## 3. 역사적 가치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이하 박물관)은 사라져가고 있는 아날로그 사진 자료를 수집 보존해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사 전문 박물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군산의 근현대 모습을 담은 생활 사진을 수집하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과거의 아날로그 사진 기록물은 근대 군산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향토사 자료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근대 아날로그 사진 자료들은 귀중한 향토사의 자료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80)

## 4. 건축방식

78) 이일권, 「[군산 근대산업유산벨트화지구 - 근대역사박물관] 일제 수탈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 떠나요」, 『전북일보』, 2014.04.14.
79) 이현주, 1998, 『개항기 군산항의 유통권 변동과 무역구조』, p.4-5 (569-570).
80) 오운석, 「근대역사박물관, 군산의 근대 사진기록물 수집·보존」, 『시사매거진』, 2020.04.13.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의 밖으로 나가게 되면 오른쪽으로는 사적 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이, 왼쪽으로는 등록문화재 372호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과 등록문화재 374호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있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에 지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관 건물이며, 고딕 지붕과 로마네스크 창문, 영국식 현관과 벽난로의 흔적 등 유럽 건축양식을 혼합한 근대 일본식 건물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현재 호남 관세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어 내부 관람이 가능하다. 구 군산세관은 서울역과 한국은행 본점을 포함해 국내 3곳 밖에 없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로 건축사적인 의미를 지닌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더하여,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은 군산 근대미술관으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군산 근대 건축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81)



**<군산 근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구 군산세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의 외관은 설계 당시 주변 근대 건축물인 구 군산세관을 비롯해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바다와 하늘 등 자연 색상으로 디자인 주제로 삼고 최대한 인위적인 색을 지양하고 재료 본연의 색을 살린 특징이 있다 볼 수 있다82).



**<군산 근대건축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81) 김은지, 「군산의 아픈과거를 보여주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조세일보』, 2020.01.06.
82) 임태영, 「관광도 하고 연말 명예홍보요원 특전도 누려보세요」, 『전라일보』, 2015.11.29.

**[ 참고문헌 ]**

김은지, 「군산의 아픈과거를 보여주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조세일보』, 2020.01.06.

임태영, 「관광도 하고 연말 명예홍보요원 특전도 누려보세요」, 『전라일보』, 2015.11.29.

오운석, 「근대역사박물관, 군산의 근대 사진기록물 수집·보존」, 『시사매거진』, 2020.04.13.

이일권, 「[군산 근대산업유산벨트화지구 - 근대역사박물관] 일제 수탈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

떠나요」, 『전북일보』, 2014.04.14.

이현주, 1998, 『개항기 군산항의 유통권 변동과 무역구조』, p.4-5 (569-570).

## < 구 군산세관 >

21학번 강성훈

2018년 8월 6일 대한민국 사적 제545호로 지정된,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대한제국(大韓帝國) 시대에 세워진 건물. 구 군산세관 본관의 위치는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 서쪽에 있다. 건물 뒤쪽, 안마당을 중심으로 북동쪽의 신관과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구 본관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세관 창고가 배치되어 있다. 현재 호남 관세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 군산세관 본관>

### 1. 역사적 배경

군산항이 개항된 것은 고종, 36년(1899)(광무[83] 3) 5월 1일, 개항과 더불어 조계(租界) 조약[84]이 체결되고 개항장이 설치되면서, 군산에는 옥구감리서[85] 외에 일본 목포 영사관 군산 분관이 설치되었고, 또한 경무서(警務署)[86]와 해관(海關) 등이 설치되었다. 해관의 역할은 세관 업무와 밀수 출입행위를 방지하고 선박의 출입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했었다. 당시 군산해관은 인천해관의 담당이었다.



<옛 군산항>

고종, 43년(1906)(광무 10) 인천해관 군산지사를 설립하고 청사 건립을 계획하였는데, 이 건물은 탁지부[87] 건축소 산하 임시세관 공사 부의 계획에 의하여 순종, 2

83) 대한제국 고종 때의 연호
84) 1883년부터 1884년까지 조선 정부가 인천의 개항장 내에 조계를 설정하기 위해 체약국 대표들과 조인한 조약. 발생일 1883년 9월, 종료일 1914년 4월.
85) 개항 이후 군산항 조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외교 및 통상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서.
86)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 사이 경찰 업무를 맡았던 관청.
87) 탁지부(度支部) 또는 탁지아문(度支衙門)은 대한제국 당시 정부의 재무(財務)를 총괄하여

년(1908)(융희[88] 2) 6월 20일에 준공되었다. 군산항은 개항 당시 넓지 않은 어촌이었지만, 1910년 8월 국권침탈이 이루어지자 조선총독부의 설치로 군산은 부로 승격, '군산부청'이 들어섰다. 1908년 전국 최초로 전주-군산 간 포장도로가 익산-군산 간의 철도가 개설되면서 호남 최대의 상업 도시로 성장했는데, 이 같은 배경에는 일제의 쌀 수탈이 자리하고 있다. 1926년 말(末) 30정보[89] 이상의 규모를 가진 일본인 농장 수는 전북이 가장 많아, 수탈을 많이 당했다. 1935년 군산에서는 주민의 60% 이상이 보리가 아직 여물기도 전에 곡식이 떨어지는 춘궁(春窮) 농가였으며, 굶어 죽는 사람이 514명에 달했고, 1916년 53%였던 소작농 가는 1930년 87%에 달하는 등 가난한 농부들은 굶주림에 자신이 소유하였던 토지를 일본인에게 넘겼다. 1933년 일본인 소유 농장과 가혹한 공출(세금)로 209만 섬의 쌀이 군산항을 통해 빠져나갔다.

## 2. 건축 방식

중앙의 현관을 들어서면 포와이에[90] 뒤로 내부 중심부에 커다란 홀이 있고, 홀 주위에는 실들이 거의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앙 홀은 벽난로가 시설되어 있었으며 천장고[91]도 매우 높아 공공 행사를 치르는 장소로 이용하였다. 이 건물의 특징은 지붕의 다양한 처리에 있다. 천연슬레이트와 동판으로 마감된 지붕은 우진각 형태[92]와 박공지붕[93]이 혼합된 모습이다. 전면 현관 상부는 완만한 곡선의 아치를 만들고 뒤쪽에 다시 박공벽[94]을 구성하여 높은 지붕면과 박공면이 조화를 이루며 입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후면은 전면과 같이 좌·우측 끝에 낮은 박공지붕을 만들었으나 그 옆에 돌출된 포치[95]를 구성하였으며, 지붕 중앙부에는 벽난로 굴뚝이 올라와 있다. 불란서(프랑스) 또는 독일 사람이 설계하고 벨기에에서 붉은 벽돌과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건축했다고 한다. 창문은 로마네스크 양식[96]이며 현관의 처마를 끄집어낸 것은 영국의 건축양식으로 전체적으로 유럽의 건축양식을 융합한 근세

---

회계, 출납, 조세, 국채(國債), 화폐, 은행 등에 관한 모든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한다. 조선 시대의 호조의 기능을 일부 수행.

88) 대한제국 순종 때의 연호.

89) 토지 면적, 30정보 = 297,521㎡

90) 로비.

91) 반자높이. 실제 거주 공간 내부 높이.

92) 건물 사면에 지붕면이 있고 추녀마루가 용마루에서 만나게 되는 지붕.

93) 보의 좌우에 2개의 장방형 사면을 붙인 것과 같은 모양의 지붕. 책을 펼쳐서 엎은 모양.

94) 박공지붕 밑에 이루어지는 삼각형 모양의 벽.

95) 건물 입구의 지붕이 있는 구조물.

96) 당시의 잦은 전쟁으로 인한 석재구조를 사용함으로 육중한 특질, 두꺼운 벽, 둥근 아치, 튼튼한 기둥, 그로인 볼트, 큰 탑과 장식적인 아케이드(늘어선 기둥 아래의 공간)

일본 건축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바깥벽은 붉은 벽돌이지만 내부는 목조로 건축되었다. 전체적으로 대칭적 모습이고 내부는 많은 부분이 개조되었으나, 변화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

### 3. 역사적 가치

개항 초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던 서양식 건축기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건축 당시의 형태를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있다. 서양식 건축물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학술적·건축적 가치가 크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경제 수탈사 및 관세행정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유럽의 건축양식과 일본의 근세 건축이 융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물 중 하나로 꼽힌다.

**[ 참고 문헌 ]**

이예슬, 「'일제 수탈' 되새기는 해관카페」, 『단비뉴스』,2021.02.16.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시 및 아카이브 > 지역학 > 군산의 문화유적 > 도지정 기념물 > 도기념물087호, 구 군산세관 본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구군산세관본관(舊群山稅關本館)'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유산 검색 > 문화재 검색 > 구 군산세관 본관
노형석, 「일제의 쌀수탈 지켜본 옛 군산세관 국가사적 된다」, 『한겨레』,2018.06.22.
한상훈, 「 「구 군산세관 본관」 사적 지정 예고」, 『우리문화신문』,2018.06.22.
문정곤, 「옛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된다」, 『전북일보』,2018.06.24.

## < 군산 근대 건축관 >

21학번 이준명



<군산 군대 건축관>

군산시 장미동 해망로에 위치한 현 군산 근대건축관 건물은 식민 지배를 위한 금융시설인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이었으나 2008년 군산시에서 인수한 뒤 보수와 복원 작업을 거쳐 군산 근대 건축관으로 개관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근대 건축 유산을 수리 및 보수를 하고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의의가 있다. 4층 높이를 가진 2층 건물이며 현재는 실내 전시에서는 군산 근대건축물의 미니어처 전시, 조선은행의 유물 등을 전시하고 야외전시에서는 일제 강점기 방공호와 최만식의 '탁류'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동상이 전시되어 있다.

### 1. 설립 배경 및 역사

1876년 조선의 개항 이후 1879년 제일은행은 조선에 진출하여 무역 확대와 영업망을 구축해나갔다. 1902년 '제일은행권'을 발행하여 조선에 유통하려 하였으며, 1905년 화폐를 정리할 때에는 백동화를 정리하는 담당기관이 되었다. '제일은행권'은 공사 간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되도록 공인되어 발해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국고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며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지위를 획득했다. 이후 1909년 한국은행이 설립되어 이 역할을 인계 받았을 때까지 제일은행의 기능은 작용하였다. 한국은행이 1909년 11월 개설되었으나,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며 [조선은행법]이 발포되고,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1909년 11월 24일에 개업하였으며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축물은 1922년 7월 나카무라 요시헤이가 설계하였다. 이후에 1945년 일본이 항복하며 한국이 해방되었고, 조선은행 각 지점은 인수인계 후 폐쇄 작업에 들어간다. 이때 군산지점 또한 11월 10일 폐쇄되었고, 1953년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이 인수하였다. 하지만 1981년부터는 개인소유로 넘어가며 용도가 변경되었다. 예식장, 유흥주점 등으로 이용되며 구조와 평면, 외관 등이 크게 변화되었고, 1990년에도 건물에 새로운 출입구가 새로 생겨 건물이 크게 변경되고 화재까지 발생하며 이후엔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훼손과 방치가 오래 지속하며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이름만 남아 군산의 수탈 역사를 대표하는 표상물로 남아 있었다가, 2008년 군산시에서 이를 인수하고 2013년까지 복원 및 보수 작업을 한 뒤 군산 근대건축관으로 활용하며 이름뿐만 아닌 기능적으로도 군산의 역사를 대표하는 건축물 및 기관으로 활약 중이다.

### 2. 인물탐구 - 나카무라 요시헤이



<나카무라 요시헤이>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설계자인 나카무라 요시헤이는 1880년 일본에서 태어나 105년 동경제국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그의 스승인 다쯔노 긴고가 운영했던 다쯔노·카니시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동경제국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1년간 공부했다. 이때 나카무라 요시헤이는 제일은행 한국 총 지점의 설계에 참여하였고, 1907년 한국으로 들어와 제일은행 임시 건축부 공무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조선은행 본점의 공사 감독을 맡았고 한국에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 조선은행과의 인연으로 조선은행의 건축설계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하여 설계 자료들이 모두 유실되어 사무소를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귀국행을 결정하였고, 이후 지속해서 건축업계에서 활동하다가 1963년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 3. 주요시설

군산 근대건축관은 크게 5가지로 주요 시설로 나눌 수 있다. 1층에 가장 먼저 보이는 로비 공간에서는 옛 군산 역사나 구 군산부청과 같은 군산의 옛 건물 미니어처와 군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약 5분)을 관람할 수 있는 바닥 스크린이 있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대의 군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금고실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은행에서 발행했던 화폐 등의 유물을 보며 당시 조선은행이 수행한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지점장실 공간에서는 경술국치를 기억하기 위해 징병보험 홍보 전단지, 김홍렬 열사 의복 등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전시하여 이를 관람할 수 있다. 응접실 공간에서는 사진과 영상으로 다양한 근대 군산시민들의 모습과 쌓아놓은 쌀가마니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층 공간에서는 탄압받는 군산 시민들의 모습을

구현해두었고 그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꿥박받는 군산시민>



<옛 군산역사>

**[ 참고문헌 ]**


임유미, 2012, 「일제강점기 조선은행 군산지점의 역사와 그 활용」

김기현, 「수탈과 항쟁 역사 군산근대건축관 발길 이어져」, 『전북중앙』, 2018.05.24

문화재청, 2009,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기록화 조사 보고서」

# < 근대미술관 (구 일본 제 18은행 군산지점) >

21학번 박민희

## 1. 유적지 소개





〈근대미술관 보수 전후〉

군산 근대미술관은 전북 군산시 해망로 230에 위치한다. 일본 제 18은행 군산지점은 1907년 설립되었으며 당 건물은 두 회사에 매매되다가 2008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3년 근대미술관으로 개관하였다.

일본 제 18은행은 일제강점기 초반 금융기관으로 곡물 반출과 토지 강매를 목적으로 삼았다. 일본 제 18은행은 일제강점기 초반 은행 건축물의 전형을 따른다. 또 트러스[97]가 사용되어 당시 건축의 서양 문물 사용을 알 수 있다.

현재는 본 건물에서 본관은 미술관으로, 관리동은 건물역사전시실로, 금고동은 안중근 의사 기념전시관으로 이용된다.

## 2. 일본 제 18은행 군산지점의 설립

개항[98] 이후 외국인의 거류지 형성과 1906~1925년에 군산항, 철도, 도로의 보급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급격히 성장한 군산에는 근대적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여러 은행[99]이 설립된다.

일본 제 18은행은 나가사키에 본사를 두고 조선에 7번째 지점으로 설립하였다.

본 은행의 설립 목적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의 곡물 반출과 조선인에 대한 토지 강매이고 그것을 위해 설립한 금융기관이다. 실제로 당 은행은 고리대금업을 하며 조선인의 토지를 빼앗았다.

## 3. 군산 근대미술관

1936년, 제 18은행의 모든 지점이 폐지되면서 일본 제 18은행 군산지점 건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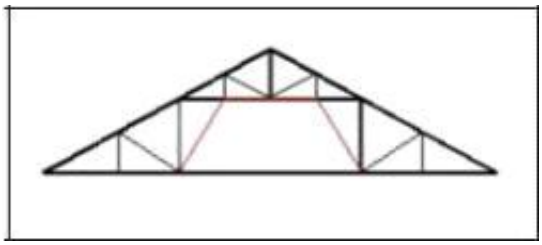
97) 곧은 강재나 목재를 삼각형을 기본으로 그물 모양으로 짜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 방식.
98) 군산은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라 6번째로 개항된 항구 도시.
99) 일본제일은행 지점, 일본 제 18은행 지점, 조선상어업은행 지점, 조선식산은행 지점.

조선식산은행이 매입하고, 1938년에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가 매입한다. 광복 이후 1950년에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로 회사명이 변경되고 1963년, 다시 회사명이 변경되며 대한 통운 군산지점 건물로 사용되었다. 본 건물은 2008년 2월 28일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보수 복원을 이후 2013년 근대미술관으로 개관하게 되었다.

군산 근대미술관은 본관에서 미술관으로 쓰이며 관리동은 건물역사전시실로, 금고동은 여순감옥 전시관과 안중근 의사 기념전시관으로 조성되어 있다.

## 4. 건물건축방식

일본 제 18은행 군산지점 본관 지붕에는 서양식 건축양식으로 나타나는 목조 지붕트러스 중 트러스가 두 개의 기둥을 갖는 쌍대공 트러스 형식이 쓰였다. 하부 구조는 목조로 구성되어있다.



〈쌍대공 트러스〉

반면, 지붕 마감에는 일식 기와가 쓰였는데, 이는 서양식 건축양식이 군산지역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건축양식으로 나타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18은행 군산지점은 우진각[100]형 지붕 형식을 띠며 석재를 이용해 건물의 모서리를 장식하고, 장방형 창을 달았다. 이 생김이 인천지점과 매우 유사하여 공통적인 설계 기준을 이용하여 지점은행으로서의 일관성 유지한 것으로 본다. 또 군산지점 내부는 목제 패널 마감이 되어있다.

출입구는 돌출된 형태였으나 철거되고 장방형 창 역시 아치형 창으로 바뀌었다.

일본 제 18은행 건물은 외관이 폐쇄적으로 계획된 동시대 은행 건축의 일반적인 양식을 따른다. 따라서 본 건물은 일제강점기 초반에 건축한 은행 건축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유물로 보존 가치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 5. 역사적 의미

군산 건물 중에는 벽돌 건물이 있거나 일본식 건축법과 서구 양식 주의 경향을 절충한 근대건물들이 나타난다. 이는 서양식 건축양식과 일본식 건축양식이 군산지역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건축양식으로 나타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산의 건물은 다른 지역보다 일본 건축법이 사용된 건물이 더 많은데 이는 근대건물 양식의 발전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지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일본 제 18은행 건물은 동시대의 은행 건축에 쓰인 일반적인 양식을 이용하여 당

100) 네 개의 추녀마루가 동마루에 몰려 붙은 지붕으로 지은 집.

시 은행 건물의 특징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은행 건물의 발전과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로써 보존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

**[참고문헌]**

전재홍, 2000년, 「일본 식민시대의 흔적: 전라북도 군산시를 중심으로 사진」
송석기, 2004, 「근대도시 군산의 일제시기 건축유산 현황과 건축적 특성」
박대준, 주남철, 2002, 「우리 나라 은행건축의 변천에 관한 사적 고찰 – 19세기 말부터 일제 식민지기까지를 중심으로 –」
송석기, 2004, 「군산지역 근대건축물의 현황 및 변천에 관한 기초연구」
이윤희, 2010, 「근대건축물에 적용된 서양식 목조 지붕트러스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기록화보고서를 중심으로」
군산시 문화관광, 근대미술관 (구)일본 제 18은행 군산지점
국가문화유산포털,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 < 진포 해양테마공원 >

21학번 서은수

### 1. 유적지소개



<진포 해양테마공원 전경>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진포 해양테마공원은 세계 최초의 함포 해전으로 기록된 진포대첩의 현장이며, 옛 군산 내항을 공원화한 장소이다. 고려 후기 최무선 장군이 왜선 500척을 무너뜨린 내항에 육해공군의 퇴역 군 장비 등을 전시했다.



<진포 해양테마공원 입구>

진포 해양 테마 공원 입구에는 우리나라 국기를 포함한 만국기가 걸려있다. 이 국기들은 6.25 전쟁 때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의 국기이다.[101] 또한, 공원의 앞쪽에는 해경정과 수륙양용 장갑차, 자주포, F-86 전투기 등 육해공군 퇴역 군 장비가 전시되어 있다. 그 외에도 위봉함을 볼 수 있는데 1945년 1월 미국에서 건조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상륙작전 등에 참전했고, 우리나라가 1959년 1월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것이다. 이어 군의 상륙작전과 수송작전을 수행했으며, 1965년에는 월남전에 참여한 전적이 있고, 48년간의 전투 활동과 국토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지난 2006년 12월 31일에 명예롭게 퇴역했다. 위봉함 안에는 진포 대첩관을 비롯해 4D 영상관 및 병영 생활 체험관이 존재한다.[102]

진포 해양 테마 공원을 거닐다 보면 일명 '뜬다리'로 불리는 부잔교를 볼 수 있다. 뜬다리 부두는 호남평야 지역에서 철로를 통해 수탈한 쌀을 선박으로 옮기기 위해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수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설물이다. 부잔교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특성을 감안해 물에 뜰 수 있는 정박시설을 건설한 후, 부두에서 정박시설까지 다리를 만들어 밀물과 썰물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도록 한 선착장 시설물이다. 일제는 수탈한 곡식을 일본으로 신속하게 송출하기 위해 8년에 걸쳐 부잔교 3기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3천 톤급 기선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구조물이었다. 추가 설치까지 총 6기의 부잔교가 있었으나 현재는 3기만이 남아

101) 이연선, 「[SN포토] 군산에서 아이들에게 역사탐방 기회를 [군산 진포해양테마공원]」, 『시선뉴스』, 2014.10.31.
102) 김기현, 「진포대첩'한눈에'진포해양테마공원인기」, 『전북중앙신문』, 2018.05.24.

있다. 이 부잔교를 통해 조선인의 땀과 눈물이 서린 다량의 곡식들이 일본으로 향했던 역사를 볼 수 있다.[103]

## 2. 인물탐구 – 최무선



<최무선>

최무선 장군은 고려에서 화약과 화약을 이용한 무기를 처음 제작하고, 사용하였다. 무관이었던 최무선은 고려 후기 왜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 화약과 총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연구에 임했다. 화약을 만드는 초석, 유황, 분탄 중 유황, 분탄은 쉽게 구할 수 있었으나 초석은 제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화약을 만들어 먼저 사용하던 중국을 통해 배우기로 했다. 중국인의 왕래가 잦았던 무역항인 벽란도에 가 중국으로부터 오는 상인들 중에 초석의 제조 방법을 알고 있는 자를 찾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강남에서 온 이원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 최무선은 이원을 후하게 대접하는 등 지극한 정성을 보였고, 화약을 만들어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는 집념으로 이원을 감동시켜 그에게서 흙에서 초석을 추출하는 법을 배웠다. 최무선은 그 결과 최종적으로 화약을 만드는데 성공했다.[104]

## 3. 역사적 배경

13세기 초 왜구는 우리나라에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했다. 14세기에 들어서자 이들의 침입은 더욱 빈번해지고 그 규모도 더욱 커졌다. 그러나 당시의 고려는 내우외환으로 인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1371년 최영이 다시 정계에 복귀했고 이어 6도 도순찰사와 도통사를 거치며 수군 강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최영이 왜구의 침입을 막는 데는 수군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동안 왜구와의 전투 속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려는 1380년 8월 진포에 침입한 왜적을 분멸시키는 진포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105]

– 진포대첩의 내용

고려 우왕 6년(1380), 진포에서 고려 수군은 처음으로 화약 무기를 사용해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 왜구는 1350년부터 고려를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시작하여 해안 지

103) 이지연, 2018, 『근대문화도시 군산 : 옛 이야기들이 말을 거는 군산 시간여행』.
10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최무선(崔茂宣)).
105) 김민영, 2016, 『진포대첩의 역사적 의의와 재현행사 활성화방안』, p.3.

역은 물론이고 내륙 깊숙이까지 침입해왔다. 1380년 8월 진포에 왜구들이 500여 척에 이르는 대선단을 거느리고 곡식을 노략질하기 위해 군산 방면으로 침입해 왔는데, 그 군사의 규모는 10,000명에 이상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다. 왜구는 약탈할 곡식들을 함선에 적재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큰 밧줄로 배들을 서로 잡아매고 일부 병력을 남겨둔 채 육지를 돌아다니며 곡식을 비롯한 재물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한편, 왜구의 함대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받은 고려 정부는 심덕부, 나세, 최무선의 지휘하에 화약 무기를 적재한 신형 함선 100척을 출동시켜 왜선을 소탕하도록 하였다. 고려 함선들은 진포에 이르러 밧줄로 서로 묶여있는 적함을 향해 일제히 화전과 화통, 화포를 사용해 집중 사격을 퍼부었다. 화공을 통해 고려 함대는 적선을 모조리 파괴, 소각시켰고 왜구에 붙잡혀 있던 많은 고려 백성들을 구출하였다. 진포대첩은 1350년 이후 왜구들이 고려에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시작한 이래로 30년 만에 고려 수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였다.[106]

### 4. 역사적 가치

진포대첩의 역사적 가치로 첫 번째는 진포대첩은 세계 해전사에서 처음으로 화포를 사용한 전투였다. 지금까지 세계 최초로 화포를 사용하여 적선을 격침시킨 해전으로는 1571년 레판토 해전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진포대첩은 레판토 해전보다 191년 이른 시기였다. 또한, 진포대첩은 왜구의 기세가 크게 꺾어 왜구의 침입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진포대첩은 조선 수군 전술의 모델이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 역시 진포대첩과 같은 전술을 사용하여 왜군을 물리쳤다. 즉, 진포대첩의 전술은 200년 이후에 일어난 임진왜란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선진적인 전술이었으며, 그렇기에 조선 수군의 전술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107]

106) 이창희, 「최무선과 진포대첩, 황산대첩과 이성계」, 『인천in』, 2020.03.23.
107) 이창희, 「최무선과 진포대첩, 황산대첩과 이성계」, 『인천in』, 2020.03.23.

**[ 참고문헌 ]**

김기현, 「진포대첩'한눈에'진포해양테마공원인기」, 『전북중앙신문』, 2018.05.24.

김민영, 2016, 『진포대첩의 역사적 의의와 재현행사 활성화방안』, p.3.

이연선, 「[SN포토] 군산에서 아이들에게 역사탐방 기회를 [군산 진포해양테마공원]」, 『시선뉴
스』,2014.10.31.

이지연, 2018, 『근대문화도시 군산 : 옛 이야기들이 말을 거는 군산 시간여행』.

이창희, 「최무선과 진포대첩, 황산대첩과 이성계」, 『인천in』, 2020.03.23.

## < 동국사(東國寺) >

20학번 허성민

### 1. 개요



<동국사 대웅전의 모습>

동국사(東國寺)는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금광동 135-1, 동국사길 16)에 소재하고 있는 1909년에 창건(創建)[108]된 일본식 사찰이다.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945년에 일본 제국이 패망(敗亡)[109]할 때까지 일본인들은 한국 땅에 약 5백여 개의 사찰을 건립(建立)하였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기능하고 있는 사찰이 바로 동국사이다. 본채와 요사(寮舍)[110] 그리고 종각 등 모든 사찰 전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국사(東國寺)라는 절이 처음부터 이름이 '동국사'였던 것은 아니다. 1909년에 창건된 이후 1945년에 한국이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불렸던 이름은 '금강선사(錦江禪寺)'였다. 이를 축약해 '금강사(錦江寺)'라고 부르기도 했다. '금강사'라는 이름의 유래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군산이 있는 전라북도 지역을 유역으로 두고 있는 금강(錦江)에서 따온 것이다. 현재 절의 이름인 '동국사(東國寺)'는 1970년에 남곡(南谷) 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로 증여하기 전에 개명한 이후로 불리고 있는 새로운 이름이다.

### 2. 인물탐구 - 우치다 부칸 ● 남곡스님

동국사와 관련된 인물들은 두 분의 스님이 있는데, 먼저 알아볼 스님은 창건자이자 초대 주지(住持)였던[111] 우치다 부칸(內田佛觀, 1832~1916) 스님이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근대 시대에 세워진 일본식 사찰이니만큼 창건자 또한 일본인이었다.

우치다 부칸(內田佛觀) 스님은 사실상 일본의 보호령 신세가 된 1909년의 대한제국 군산에 절을 창건했다. 스님은 1832년에 태어났으며, 1845년에 13세가 된 스님은 승려가 되기 위해 천태종 소속의 절에 들어가 체발(剃髮)[112]하고, 3년 후인 1848

108) 건물이나 조직체 따위를 처음 세움.
109) 싸움에 져서 망함. 동의어로 '패상(敗喪)'도 있음.
110) 승려들이 생활하는 모든 건물, 흔히 '요사채'라고 부르기도 함.
111) 한 절을 주관하는 승려를 일컫는 말.
112) 머리털을 바싹 깎음. 동의어로는 삭발(削髮), 낙발(落髮) 등이 있음.

년에 득도(得度)[113]하여 그 후로도 약 18년 동안 승려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1866년에 드디어 34세의 나이에 주지가 된 스님은, 이후로도 네 곳의 절의 주지를 다섯 번이나 역임하는 동안에 승려로서의 성실한 불심(佛心)을 잃지 않았고, 20세기 초인 1902년 이후로 은퇴했다.

스님이 군산에 정착했을 당시 그는 77세로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고령인 나이였다. 77세의 노승(老僧)이 본국(本國)인 일본이 아닌 한국에 와서 절을 창건하고 그 절의 주지가 되었다. 1913년에 건물이 모두 완공된 이후로 3년을 더 금강선사(금강사)의 주지로 있다가, 1916년에 84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남곡 스님의 영정

다음으로 알아볼 인물은 남곡(南谷) 스님이다. 남곡 스님은 1913년에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으며, 1931년에 18세의 나이에 영호 스님을 은사(恩師)로 출가하여, 3년 후인 1934년에는 21세의 나이에 만암 스님을 계사(戒師)[114]로 구족계(具足戒)[115]를 받았다. 1935년에 백양사의 강원(講院)[116]을 졸업하신 이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 백양사 선원(禪院)에서 불도(佛道)를 정진(精進)[117]하다가, 광복을 맞이한 1945년에 32세의 나이로 선운사 초대 주지로 임명되었다. 세속의 나이로 50대에 들어선 스님은 1963년에 불교 정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비구(比丘)[118]와 대처(帶妻)[119] 양측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고, 조계종 총무원의 재무부장과 교무부장,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하시면서 불교계의 올바른 발전에 앞장섰다.

또한, 1966년에 고창의 선운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의 본사(本寺)로 승격되는 일에 큰 역할을 했으며, 53세이실 때 본사(本寺)로써 다시 시작한 선운사의 초대 주지를 맡아 대웅전 및 도솔암 등을 중창했다. 1983년에 스님은 자신이 주지의 자리를 처음 맡았고, 본사(本寺) 승격을 위해 힘썼던 선운사에서 70세라는 나이에 입적했다.

113) 출가하여 승려가 됨.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다'라는 뜻이기도 함.
114) 불교에서 계법을 일러 주는 승려.
115) 불교에서 비구(남자 승려)와 비구니(여자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
116) 사찰에 설치되어있는 경학 연구의 전문 교육 기관.
117)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닦으며, 세속의 인연을 끊고 채식하면서 불도에 힘쓰는 일.
118) 비혼인 남자 승려
119) 아내를 둔 승려

### 3. 절이 창건된 역사적인 배경

절이 세워진 역사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 근대사의 실질적 시작인 18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876년 조일 수호 조규(일명 '강화도 조약')의 체결 이후 시작된 개항기에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경기도의 인천(仁川), 경상도의 부산(釜山), 함경도의 원산(元山) 세 곳의 항구만이 개항되었다. 이후 1890년대에 가서는 청일 전쟁에서 승리해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된 일본이 1897년에 전라도의 목포(木浦)와 평안도의 진남포(鎭南浦)를 추가로 개항시켰고, 이곳 군산(群山)도 연이어 1899년에 개항하게 된다. 개항으로 인해 군산에도 일본인들이 건너와 살기 시작했고, 일본인들이 신토(神道) 다음으로 많이 믿는 불교의 사찰도 세워지게 되었다. 1909년에 일본인 승려 우치다 부칸이 세운 '금강선사(錦江禪寺)' 혹은 '금강사(錦江寺)'도 바로 사찰이었다. 광복으로부터 25년 이후에 '동국사(東國寺)'로 이름이 바뀌어 현재까지 절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절 자체는 1909년에 창건되었지만, 절의 건물들은 4년 뒤인 1913년에 완공된다. 창건자인 우치다 부칸 스님은 1916년까지 금강사의 초대 주지로 부임하였고, 주지로 있던 마지막 해(1916년)에 입적(入寂)[120]하였다. 초대 주지 우치다 부칸 스님의 사후에도 금강사(錦江寺)는 여러 주지 스님들을 거치며, 일제강점기 동안 운영되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이 미합중국과 연합국 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맞이하게 된 광복 이후로 일제 치하 조선에서 살았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려 했다. 당시 절에 있었던 승려들도 모두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절은 지금의 남한 지역, 당시에는 남조선 지역에 주둔하게 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약칭으로 '미군정'이라고 함)에 의해 압류되었다. 미군정이 끝나고 정식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에게로 재산권이 이관되었지만, 한국 전쟁(1950~1953)이 휴전된 이후인 1955년에 전라북도 종무원에서 절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소유권이 다시 불교계로 돌아가게 되었고, 1970년에 지금의 이름인 동국사로 개칭이 된 후에 한국의 다른 절들처럼 운영되었다.

그러나, 동국사(舊 금강사)에 찾아온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1990년대에 식민 잔재 청산을 주창했던 김영삼 행정부와 당시의 군산시청이 이곳 동국사를 식민 잔재의 청산을 목적으로 철거할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국사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후 2003년에는 동국사 대웅전이 정식으로 등록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되었다.

---

120) 승려가 죽음. 유의어로 멸도(滅度). 열반(涅槃). 입멸(入滅)이 있음.

## 4. 절에 적용된 건축 방식과 일본식 사찰의 특징

동국사는 정방형 단층 팔작지붕 홑처마 형식의 에도 시대 양식으로 지어졌다. 동국사와 같은 일본식 사찰은 공간 구조부터가 한국식 사찰과는 다른 구조이다. 한국의 사찰은 '법당'과 스님들이 생활하는 건물인 요사채가 분리되어 있거나 아예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동국사의 경우는 회랑(回廊)[121]식으로 두 건물이 이어져 있다. 요사채의 방들에는 일본의 집들에서 볼 수 있는 수납장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절의 원형과 내부의 특징이 일본식 사찰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동국사의 건축 방식에서는 일본식 사찰의 건축 방식이 드러나는 부분이 곳곳에 존재한다. 첫 번째로, 한국의 사찰들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단청(丹靑)'[122]을 동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 여름에 매우 습한 일본 열도의 기후를 고려한 특유의 미닫이문들이 많다는 것 역시 한국 사찰과는 다른 부분이다. 세 번째로는 동국사의 지붕 경사가 일반적인 한국 사찰들보다 더 급한 경사를 보인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종각에 걸려있는 범종이 땅바닥과 거의 맞닿아 있는 한국의 범종들과는 다르게 종각의 지붕에 높게 매달려 있다는 것에서도 일본식 사찰의 특징을 더 확인할 수 있다. 절의 건물 중 가장 중요한 대웅전 내부의 바닥은 원래 일본의 전통 돗자리인 다다미(たたみ)가 깔려있었는데,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 당시에 군산에 들어온 북한군에 의해 없어지고, 학교 바닥에 자주 보이는 장마루[123]로 다시 깔았다고 한다.

## 5. 해당 절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와 오늘날 인식

동국사가 일본인이 창건한 일본식 사찰이라고 해서 한국의 전근대 시절에 창건된 다른 절들에 비해 역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약 36년 동안 일본의 한 지방인 조선(朝鮮)으로 그 지위가 떨어졌던 역사는 아프지만, 그것도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

121) 정당(正堂)의 좌우에 있는 긴 집채.
122) 대궐이나 절 등의 벽·기둥·천장 등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과 무늬를 그림. 또는 그 그림이나 무늬.
123) 긴 널을 죽죽 깔아 만든 마루.

개요 부분에서도 언급한 것이기는 하나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945년에 일본 제국이 패망할 때까지 일본인들은 한국 땅에 약 5백여 개가 넘는 사찰을 세웠다. 그 많은 절이 광복 이후에도 많이 남아있었다면 동국사도 일본식 사찰 중 하나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절의 모양이 모두 온전히 남아있고 현재까지 운영이 제대로 되는 절은 군산의 동국사가 유일하다. 그렇기에 한국 땅에 온전히 남아있는 일본식 사찰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에 대한 동국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문화학적으로도, 역사학적으로도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동국사 대웅전 건물은 2003년에 등록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된 상태이고,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는 사찰 앞에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도 세워졌다.

**[ 참고 문헌 ]**

김두헌, 2015, <군산 금강사(해방 이후 동국사) 창립자 內田佛觀의 이력과 포교 활동 : 한국에서의 일본 조동종 사찰 창립자의 포교 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P.84~85 & P.90~91

김성호, [종교건축 이야기] (23) '유일한 일본식 사찰' 군산 동국사(東國寺), 서울신문, 2007.03.05.

박슬용, <'군산은 한국 속 일본' 광복 70년 곳곳서 묻어나는 색채>, 새전북신문, 2017.01.18.

이성균, <군산 근대문화의 빛을 품다>, Travie, 2018.10.05.

이환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개관>, 전북일보, 2019.06.04.

진재훈, <선운사, 남곡스님 30주기 추모재 봉행>, 불교신문, 2013.07.25.

## Ⅳ. 마무리

< STAMP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1. 답사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2. 버스 내에서 되도록 말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3. 조별 활동이 아닌 전체 인원이 같이 이동하여 답사 간 인솔자의 통제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활동 자제, 불응 시 각 조 팀장과 함께 이동합니다.

4. 답사자료집을 분실하지 않고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 분실 시 다시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답사자료집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합니다.

5. 정해진 시간과 계획이 있는 만큼 통제된 시간 내에서 관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 통제 미 준수시 답사 일정에 차질이 생김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답사 전체 인원이 감수해야 하니 시간엄수 바랍니다.

6. 유적지 · 관광지 답사 중 다른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가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아닌 역사문화학과의 일원으로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평소 복용하는 약은 꼭 지참해주시기 바라며 몸에 이상이 있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각 조의 교수님 또는 답준위 위원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연락망 참조)

8. 각 조마다 답준위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니 문의사항은 항시 답준위 인원들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비상연락망>

| | | |
|---|---|---|
| 교수님 | 1조 손성필 교수님 | |
| | 2조 최진규 교수님 | |
| | 3조 이정선 교수님 | |
| | 4조 김성한 교수님 | |
| 답사준비위원회 | 답준위장 박유성 (4조) | |
| | 부답준위장 강한나 (2조) | |
| | 답준위조장 박서현 (1조) | |
| | 답준위조장 정다연 (2조) | |
| | 답준위조장 채서현 (3조) | |
| | 답준위조장 박성군 (4조) | |
| | 답준위원 | |
| 학생회 | 학생회장 김주안 (3조) | |
| | 학생부회장 엄지현 (3조) | |

